



주체 105 (2016) 11 금강산

주체 105 (2016)
11
금강산

가리라 백두산으로

열정적으로 기백있게 ($\text{♩}=138$)

A^b E^b/G Fm A^b A^b₇

작사 리지성
작곡 우정희

1. 봄 날에 도 가 - 리 라 겨울에도 - 가 리 라
백 - 두 산 - 백 두 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 풍에 도 굽 힘 없 는 의 지를 주고 - (후렴) E^bsus4
신 - 념을 벼 려 주 는 혁명 - 의 전 구 가 리 -
라 - 가 리 - 라 - 백 두
산 으로 가 리 - 라 - 우 리 -
를 - 부 르 - 는 - 백 두
산 으로 가 리 라 -

2. 끝결에도 가리라 그 언제나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이 땅우에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곳
(후렴)

3. 한생토록 가리라 대를 이어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당을 따라 끌까지 갈 영광의 길에
필승의 넋을 주는 태양의 성산
(후렴)



차례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우리 조국 ···· 3

일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심어주시여 ···· 6

자강력, 승리만을 세기라 ···· 7

높이 추켜든 자강력제일주의 ···· 8

수기

첫 지하전동차가 나오기까지 ···· 9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지니고 ····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 12

선군과 군사강국 ···· 14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을 것이다 ···· 15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

질 좋은 합성가죽생산을 위해 ···· 16

청춘과원의 과일대풍 ···· 18

과학적인 축산체계를 확립한 공장 ···· 20



또다시 세계가 보게 될 전화위복의 새 기적 ···· 22

대성산기슭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 ···· 24

만사람을 격동시킨 가극 ···· 32

예술인후비육성의 원종장 ···· 33

어머니가 걸어온 길 ···· 35



편지

보고싶은 동생에게 ···· 37

대동강변에서 느끼는 대동강맥주 맛의 진미 ···· 38



남다른 자랑이 많은 고장 40

조국의 품에 안겨

조국을 위해 성실한 땀을 42

한생 변함없는 마음을 안고 44



인상기

아이들의 나라 45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 45

고국방문

크나큰 행복과 영광을 받아안고 46

애국의 대는 변함없이 이어진다 48

더욱 확대되는 비둘기문화유산보호사업 49

민족의 향기

시종호의 감탕치료로 효과를 보다 50

력사인물

조선독립군의 녘결 리관린 51

야화

화가 정선이 그린 금강산산수화 52



민족끼리 결이자 조국통일 53

재앙을 몰아오는 악녀 54

어리석은 꿈 55

제재와 압박은 파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56

상식

홍문관 36

해그밀사사건 43

코를 골면 건강에 해롭다 52

조선속담 (자고자대) 41

유모아

머저리와 총명한 사람 55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루하는 우리 조국

난 현대화, 국산화된 생산기지들에서 올리는 동음소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 넘쳐나고 평양제1백화점과 보통강백화점의 매대들에 《금컵》당파류, 《은하수》와 《봄향기》화장품, 《매봉산》구두, 《류원》신발, 《칠쭉》양말 등 우리의 상표를 단 제품들이 판매되어 인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고있다.

정말 이 모든것이 몇해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누구나 선뜻 믿기 어렵다.

한것은 우리 생활의 바깥쪽에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삶을 파괴하기 위하여 불어친 광풍이 너무도 세찼기때문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에 대한 《전례 없이 가혹한 제재》와 군사적압박을 가하며 당장이라도 《북정권의 붕괴》를 가져올듯이 떠들어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벌리놓고 《평양점령》과 《참수작전》까지 운운하며 북침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해마다 가증되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고립압살책동, 전쟁점경의 위험한 정세...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그때로부터 장장 70여년은 미국이라는 덩치큰 나라가 조선이라는 자그마한 나라를, 그 인민을 없애기 위한 숨조차 쉬기 힘든 각박한 환경이였다.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

정말 다른 나라들 같으면 열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조건이였다.

하지만 조국과 인민은 역경을 순경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 이룩해나가고 있다.

그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국인민들이 높이 추켜든 자강력제일주의이다.

자체의 힘파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면서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인 자강력제일주의,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게 하고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힘이였다.

조국땅우에 훌러간 만단사연의 역사가 그 진리 성과 불쾌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강력을 제일가는 힘으로, 생존방식으로 여겨왔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큰 나라, 남의 나라에 무기와 군대를 요구하고 독립을 구걸하느니 제손으로 적들의 총을 빼앗아 무장을 갖추고 자기 인민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힘으로 군대를 뭇고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빼앗긴 조국을 찾아야 한다는 자력독립의 의지를 지니시고 혁명투쟁을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연길폭탄정신이 나래치게 하시고 해방후 자립적국방공업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으며 자기의 힘파 기술, 자원에 의거한 경제와 국방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시련에 시련이 겹겹이 쌓이던 그때,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폐재를 올리며 공화국의 용광로와 발전소, 기계설비들이 그대로 녹쓸기만을 바라면서 그 무슨 변화를 운운할 때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조국을 강대한 해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워주시였다.

자강력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인민들에게 안겨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품을 들이시고 정파 열을 기울이시여 창조와 건설의 능수들로 억세게 키워주신 군대와 인민을 자강력의 강자들로 더욱 훌륭히 내세우시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혁명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자력자강의 정신을 심어주시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도록 결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칠강재생산을 늘여간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주시고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이 여기저기에서 마련되였을 때에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그들을 축하해주시였다.

조국인민들의 힘파 지혜로 새로 만든 경비행기의 시험비행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그이께서는 경비행기들이 조국의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여러 기종의 민간용비행기들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비행기에로 다가가시여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비행기인데 자신께서 타보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이 좋아할것이며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경비행기에 오르시였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이 짙 차넘치는 경비행기를 태시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비행운을 새기신 그이께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경비행기를 타보았는데 성능이 대단히 높다고,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종태전기기판차련합기업소에서 만든 지하전동차에도 그런 마음을 안고 오르시여 땅속을 누비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것을 굳게 믿으시고 제일로 귀중히 여기신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하고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낸것이라면 그것이 자그마한 생활용품이든 큼직한 중공업설비이든 그리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이름을 거듭거듭 외우시고 온 세상에 내세워주신다.

평양곡산공장에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서



지난해 11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셨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이 그흔히 갖추어져있는 공장을 정겹게 둘러보시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의 힘파 기술로 무조건 우리 식으로 해내려는 립장과 관점을 기둥처럼 세우고 국산화실현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업어주고싶다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이의 그렇듯 헌신적인 로고에 의하여 조국인민의 힘파 기술에 의거한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이 여기저기에 일떠서고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 식 현대화의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산소열법용광로 도입,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완공,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천리마타일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곡산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천지윤활유공장을 비롯한 조국의 여러 공장들에서 울려나오는 국산화의 동음…

하기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것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궁지와 자부심에 한껏 넘쳐 올해를 조선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도 창조와 혁신의 기적을 더 높이 펼쳐가고있는것이다.

우리 조국은, 우리 인민은 남의 덕으로 살아본적이 없으며 남의 부축을 받아 길을 걸어가본적이 없다.

앞으로도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오직 자기의 힘파 지혜,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 삶의 터전우에 눈부신 기적의 폐지만을 아로새길것이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조선중앙통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심어주시여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주체56(1967)년 1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평양전기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공장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자력갱생직장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크고작은 압연기와 연신기, 초음파연신기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초음파연신기앞에서 거미줄같은 가는 동선이 흘러나오는것을 보게 되시였다.

그것을 한동안 자세히 살펴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이 연신기에서 동선을 몇mm까지 뽑을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0.03mm까지 뽑는다는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안경을 끼시더니 기름묻은 동선토리를 가지고 창문곁으로 다가가며 창문곁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다. 일군들에게 이 가는 선이 보이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동선을 끊어 그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시며 《자력갱생직장에 있는 초음파연신기에서 0.03mm까지의 선을 뽑으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선을 뽑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발전된 나라들에서 뽑는 가는 선을 우리 나라에서도 뽑고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하시며 이 공장의 경험을 전국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수령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며 만져보신 그 동선을 뽑아내는 초음파연신기는 여러차례나 공장에 찾아오시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일용품을 생산하여 안겨주어야 한다고, 그러자

면 국소형전동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가는 동선을 어떻게 하나 자체로 뽑아내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체로 만들어낸것이였다.

맨손으로 그처럼 정밀한 초음파연신기를 만들어낸다는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였다. 그러나 공장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아오시여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필요한것은 찾아내면서 끝내 자기의 힘으로 이 설비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던것이다.

참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였다. 0.03mm까지 뽑는다는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안경을 끼시더니 기름묻은 동선토리를 가지고 창문곁으로 다가가며 창문곁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다. 일군들에게 이 가는 선이 보이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동선을 끊어 그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시며 《자력갱생직장에 있는 초음파연신기에서 0.03mm까지의 선을 뽑으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선을 뽑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발전된 나라들에서 뽑는 가는 선을 우리 나라에서도 뽑고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하시며 이 공장의 경험을 전국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창조력을 키워주시며

주체61(1972)년 6월 혜산방직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여러 직장을 돌아보시였다. 방직준비직장을 거쳐 정방직장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실을 최대한 가늘게 뽑기 위한 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소홀히 한탓으로 그 실로 짠 천이 투박해서 인민들로부터 그닥 호평을 받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남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자력갱생

의 혁명정신을 투철한 신념으로 간직하지 못하면 창조의 정신, 혁신의 기백이 마비되어 아무 일도 할수 없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다.

직포준비직장을 지나 직포직장의 방수포직기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면실과 아마실의 교직비률을 알아보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러시고는 방수포를 짜는데 면실을 지금처럼 섞으면 면실이 지내 많이 듦다고, 면은 귀중한 방직원료인것만큼 아마친을 짜는데 그것을 많이 섞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원래 아마실에 면실을 섞어 방수포를 짜면 면실이 썩기때문에 오래 쓸수도 없다, 방수포는 아마실에 면실을 섞어 짜지 말고 아마실에 비날론 같이 잘 썩지 않는 실을 섞어 짜는것이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천의 원료배합비률에서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족점을 찾아내여 대책을 세워주시며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지혜를 합치면 아무리 어려운 기술적문제도 해결할수 있다고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강도 일제를 타승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심어주시고 풀기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의 해결방도를 명찰하게 가르쳐주시며 아마방직공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주시였다.

* * *

자강력, 승리만을 해기라

오늘 세계는 제국주의 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욱 승승장구하는 조국의 현실에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한편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비약과 기적창조의 비결이 파연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싶어하고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강력제일주의에 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면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이렇게 볼 때 주체사상의 진수에 자강력이 그대로 관통되어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항일투사들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속에서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내고 식량을 비롯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일제와의 혈전을 벌리였다. 자강력은 투사들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도 혁명적신념을 버리지 않게 한 사상이였고 조국해방의 혁신적위업을 성취하게 한 승리의 힘이였다.

자강력의 정신이 있었기에 조국은 해방후 건당, 건국, 건군의 혁신적위업을 빠른 기간에 실현할수 있었고 전후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치솟아 오를수 있었다.

사회주의건설의 길은 결코 순

탄하지 않았다. 대국들이 제 지붕밑에 들어서라고 음으로양으로 압력을 가하였고 미국은 반제전선의 보루로 나선 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정치군사적압박과 경제제재책동에 매달리였다.

CNC기계,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닐론, 새 세기의 산업혁명…

자강력은 최근년간 그 생활력을 과시하며 더 높이 발휘되고 있다.

몇 해간에만도 자강의 정신, 자강의 힘으로 1년을 10년맞잡이로 비약하며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조국땅에 일떠섰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경쾌하게 달리는 희한한 화폭들이 펼쳐졌으며 《마지막나사못까지도 자기의것으로…》라고 한 외신이 평한 인공지구위성이 련속 우주에 올랐다.

그런가 하면 전략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탄이 바다수면을 뚫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격동적인 사변도 일어났고 첫 수소탄까지 태어났다.

이렇듯 자강력은 조국의 전발전력사에 관통되어있는 역센전통이고 힘이며 영원한 승리의 원천인것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이 선군조선의 의지를 꺾고 가는 길을 막아보려고 압력과 제재, 위협소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려도 그것은 자강력을 틀어쥔 조국에는 통할수 없다.

자강력을 제일 보검으로 틀어쥔 조국은 머지않아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본사기자 변진혁

높이 추켜든 자강력제일주의

오늘 자강력제일주의는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료원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그 불길이 안아온 성파는 참으로 크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과학기술전당 등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된 건축물들과 공장, 기업소들 그리고 그곳들에서 은을 내는 국산화된 설비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새겨보게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생명체가 물과 공기를 떠나서 살수 없듯이 조국인민은 자강력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할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미제를 피수로 하는 역사의 반동들이 사회주의조선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극도로 악랄한 군사적, 경제적압박과 제재책동에 광분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데로부터 자강력은 자기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라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자각과 믿음,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투철한 각오와 의지를 지니고있기에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조국인민은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기념비적건축물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개건하거나 일떠세우고있는것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기식대로 풀어나가며 자체의 강한 힘을 키워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것, 이것이 자강력제일주의의 근본바탕에 놓여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을 자기 힘을 자각하고 투철한 신념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닌 자주적인민으로, 자강력의 강자들로 키우시였다. 하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속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조

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으며 인민들은 자기의 힘으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력한 사회주의성새를 일떠세웠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자강력은 더욱더 억세여지고 강위력해졌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시였으며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인민들의 심장속에 자력자강의 억센 기동을 세워주시였다. 이렇듯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 자주적인 혁명사상은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조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력사를 쥐여짜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투쟁정신이며 활동원칙인 자력갱생의 력사이다. 그 자력갱생의 가치를 높이 들었기에 조국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이 탄생하는 민족사적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자력갱생의 력사는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지구판축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와 첫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의 성과적발사,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들에서의 성공, 핵탄두폭발시험의 완전성공 등은 자강력으로 전진하는 조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모든것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으며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다.

본사기자 한신애

수기

첫 지하전동차가 나오기 까지



저는 김종태전기기판차련합기업소 부기사장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창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김종태전기기판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들이 처음으로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하였을 때 제가 느낀 남다른 창조자의 기쁨과 궁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였습니다. 감격도 새로운 지난 해 7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 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시면서 최단기간에 우리 식으로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는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때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저의 가

슴은 막 홍분으로 설레이였습니다. 한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부 사람들이 자체로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하는것을 힘든 것으로 여기며 수입에 의존하려 하였고 또 실지 지하전동차 생산을 자체로 하는 나라는 불과 몇개 나라밖에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원수님께서 지하전동차를 생산 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인민들이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실 때 벌써 지하전동차개발생산은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지하전동차개발사업은 불이 달린 화약파도 같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공정상으로 볼 때 140일이상 걸려야 하는 지하전동차제작과제였지만 저희들은 뜻깊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이 과제를 수행할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그때까지는 80여일이라는 기일밖에 없었습니다.

140일대 80여일, 이것은 기업과의 투쟁, 불가능과 가능과의 대결이기 전에 정신력의 결사전이였습니다.

기업소의 모든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이 지하전동차 개발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모두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제 날자에 만들어내자는, 우리의 지혜와 기

술, 힘으로 만들어내자는 일념 밑에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립체적으로 내밀었습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대차구조방식과 차바퀴를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필요한 자재들도 우리 것으로 적극 탐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립직장에서는 차체옆벽을 단번에 뚫어 조립할수 있는 지구를 창안도입하여 조립기일을 앞당기고 소재직장에서는 철판교정기를 빠른 기간에 현대화하였으며 전기기구직장과 내연직장의 기능공들은 차단기와 소형압축기를 제작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전동기공장에서도 지하전동차제작에 비동기전동기를 받아들일 목표를 내세우고 종전방식으로는 40일이상 걸려야 한다던 8대의 비동기전동기생산과제를 불과 10여일만에 질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이런 드높은 투쟁속에서 기업소로동계급은 수천종에 수만개이상에 달하는 부속품가공과 수백종에 수천개의 부품조립 등 방대한 과제를 빠른 기간에 해제끼고 드디어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내고야말았습니다.

또다시 기업소에 나오시여 저희들이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

뼈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끓어번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지하전동차개발생산을 대단히 중시한 것은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진리를 수입병에 걸린 일부 사람들에게 천백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지하전동차의 시운전과정을 자세히 료해하시며 우리 기업소와 현관부문에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세계적수준의 지하전동차를 계렬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파업을 주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지니고 첫 지하전동차를 최단기간에 개발생산한 그 정신으로 가까운 기간에 세계적수준의 지하전동차를 계렬생산하여 인민들이 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전기기판차련합기업소
부기사장 김칠민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지니고

우리 조국에는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 헌신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속에는 현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 특히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공장들의 생산공정들을 국산화해가는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도 있다. 특히 청년연구사들이 그 앞장에 서 있다.

지난 기간 그들은 평양곡산공장과 평양기초식품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류경김치공장 등에서 설비들을 국산화하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아래에 그 일부를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는 국산화된 가방용천생산공정이 새롭게 꾸려져 학생들의 가방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다. 사실 처음 이 생산공정을 꾸릴 당시까지만 해도 일

부 사람들속에서는 그에 대해 기술적으로 의문시하며 안전하게 설비들을 수입하자고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오랜 연구사인 김준일을 책임자로 한 김홍덕, 리남일, 박용수 등의 연구사들은 생산공정을 국산화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때 그들에게 그 무슨 기술적담보가 있어서가 아니였다. 다만 그들에게는 이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문제이기 전에 민족적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보고 남들이 만든 설비를 자기들이라고 만들지 못하겠는가 하며 자체의 힘과 기술을 믿고 달라붙는다면 보다 훌륭하게 창조할수 있다는 정신력이 있었기때문이였다. 하여 그들은 스스로 초행길이나 다름없는 이 연구제작에 달라붙게 되였다. 물론 그들의 연구사업에 참고할것이라고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설비들에 대한 옳바른 과학기술적론리에 기초하여 컴퓨터모의를 거듭 반복하면서 설계도면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그 나날 수십번의 기술합의와 심의가 진행되고 시험과 실패가 거듭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시험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끝끝내 국내산유연창대직기에 의한 가방용천생산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어 고온고압로라염색기를 제작하여 가방용천생산의 국산화를 완전히 실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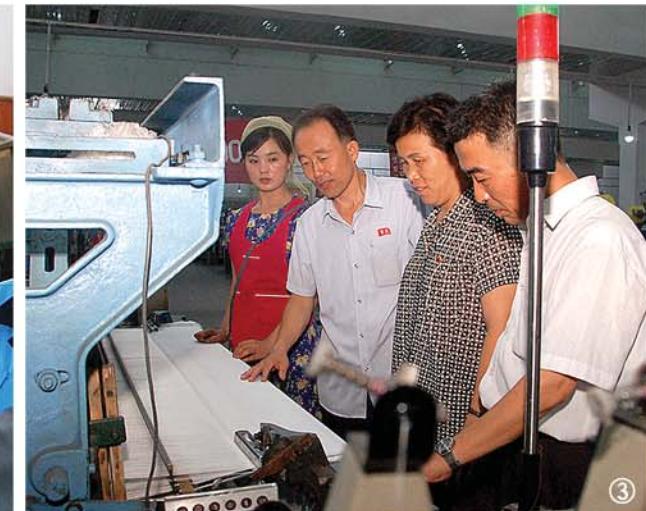
그들의 이런 정신은 평양곡산공장의 알사탕생산공정을 100% 국산화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들은 이 공정에 있는 각종 콘베아들과 육중한 가마들, 탱크들, 착유기 등 수



새로운 대상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집중에 100여대의 기계설비들을 제작할 때 다른 나라의 설비를 모방한것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새롭게 개발하였다. 지금 그 수준이 대단히 높은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류경김치공장에 꾸려진 통김치생산공정, 각두기생산공정, 장절임생산공정마다에 있는 현대적인 국산화된 설비들도 다를 바 없다.

설비들의 성능에 대하여 로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연구사들
(① 류경김치공장에서, ②, ③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과정에 그들의 지혜와 정열이 깃든 설비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여서는 공장에 꾸려진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보시며 완전히 국산화된 생산공정, 조선로동당에서 바라는 우리식 생산공정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것을 창조한 대학의 연구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평양곡산공장에 가시여서는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쁜하게 차려놓았는데 하나와 같이 미남자처럼 생겼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오늘도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경공업공장들마다에서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보다 높이 발휘해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전호에서 계속)

나는 1국1당제원칙에 대한 리해를 심화시키고 당건설방침을 하루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1930년 6월 하순에 자작툰에서 국제공산당 련락원 김광렬(김렬)을 만나보았다. 김광렬은 일본에서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쏘련에 가있다가 나온 인테리였는데 우리의 활동구역인 고유수, 오가자, 카룬지방에 많이 와있었다. 련락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와 국제당파의 련계를 지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쏘련에서 사회주의물을 많이 먹다가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장소봉과 리종라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기때문에 나도 기대를 가지고 그를 만나보았다. 만나고보니 소문과 같이 박식한 사람이였다. 그는 로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였고 쏘련 춤도 그 나라 사람들 못지 않게 잘 추었으며 연설도 잘하였다. 그때 김광렬은 나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기보다는 국제당에 가보라, 국제당 할빈련락소에 소개해줄터이니 거기에 가서 1국1당제원칙에 대하여 토론해보라고 하였다.

김광렬을 만난 후 나는 동무들과 함께 1국1당제원칙에 대한 토론을 거듭하였다.

우리는 1국1당제원칙의 요구를 한 나라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공산당이 국제당에 가입할수 없고 오직 하나의 공산당만이 가입할수 있다는것, 한 나라에는 한개이상의 공산당중앙이 존재할수 없고 하나의 공산당중앙만이 존재할수 있다는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원칙의 본질은 한 나라에 같은 리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당중앙이 하나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국제당이 1국1당제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엄격히 리행하도록 요구한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대렬의 통일단결을 보장하자는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은 국제공산당으로 하여금 1국1당제원칙을 내세우고 공산주의운동내에 여러가지 이색적인 요소들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게 하였다.

국제공산당이 1국1당제원칙을 명시하게 된것은 또한 적들이 공산주의대렬을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한것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국제공산당규약은 1국1당제의 원칙만 제시했을뿐 다른 나라에 가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재국의 당에 전당하는 방법은 어떻고 전당후 그들의 혁명임무를 어떻게 설정하겠는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당에 전당하는 문제가 그처럼 복잡한 논의를 불러일으킨것도 바로 그때문이였다. 이런 이유로 하여 일부 사람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땅에서 자체의 당조직을 꾸리는것이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된다고까지 판단하게 되었던것이다.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대한 각이한 해석으로 하여 조국의 해방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엄청난 혼란과 동요가 빚어지고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해 싸울 권리조차의문시되고있던 그런 시기에 나는 당을 창건하기 위한 방도를 꾸준히 모색하고있었다.

국제당의 지시에도 부합되고 조선혁명도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는 그런 길이 파연 없단 말인가.

이런 모색끝에 내가 찾아낸 출로가 바로 선행공산주의운동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급하게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착실하게 다지고 그 토대우에서 명실공히 우리 혁명의 참모부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당을 창건하자는것이였다.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준비된 조직적글간의 육성과 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 당이 의거할수 있는 군중적지반의 구축이 없이 주관적욕망만으로는 당을 창건할수 없었다.

나는 종파와 인연이 없는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이 우리앞에 주어진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창당방법이라고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면 국제당에서도 환영할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온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면서 우리의 발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기층당조직을 확대강화해나간다면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대한지도도 능히 보장하고 우리에게 지워진 국제적임무도 원만히 리행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땅안에서 우리의 당중앙을 따로 내와가지고 중국당과 병존하지 않는다면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도 모순될것이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정립하여 카룬회의에서 당창건방침을 제시하고 첫 당조직을 내오게 되였다.

혁명적당조직을 결성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이기도 하였다.

조선에 당이 없으니 단천농민폭동 지도자들은 폭동의 전술적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하여 국제당에까지 찾아다니였다. 조선에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대변하는 혁명적당이 있고 세련된 지도력량이 있다면 그들이 토지를 쓰면서까지 국제당에 찾아다니지 않았을것이다.

1930년대 초엽의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종전의 반일투쟁파는 대비도 할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투쟁도 초기보다는 비활바없이 전진하였다. 활동범위는 길림을 벗어나 멀리 동만과 북부조선일대에까지 확대되었다. 청년학생운동에 머물러있던 우리의 혁명투쟁은 지하활동의 양상을 띠고 광범한 로동자, 농민대중속으로 줄을 뻗치였다. 경험에 축적되고 군사정치적준비가 성숙되면 상비적인 혁명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대부대력량으로 본격적인 유격전쟁을 해야겠는데 공청이 그 정도를 다 감당할수는 없었다. 지난날 공청이 여러 대중단체들을 지도한것은 과도적인 현상이였지 영구적인것은 아니였다.

이제는 당을 만들어 그 당이 공청을 비롯한 여러 대중단체들을 장악지도하고 민족해방운동전반을領導하며 중국당파의 관계도 가지고 국제당파의 사업도 해야 하였다. 공청의 간판을 가지고서는 국제당파의 거래도 원만히 할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이 저마다 자기 파를 《정통파》로 자처하면서 승인을 받으려 다녔기때문에 국제당에서도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국제당은 조선에서 종파가 청산되기 전에는 진정한 로동계급의 전위대가 나올수 없으며 종파를 근절하고 새로운 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파쟁도 모르고 집권욕도 없는 새 세대가 나서야 한다는것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의 투쟁에 주의를 돌리였으며 우리와 손을 잡아보려고 여러방면으로 줄을 놓았다.

우리는 여러해동안의 혁명활동과정을 통하여 새형의 혁명적당조직을 내올수 있는 초석도 쌓아놓았다.

《敦. 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종

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출발점으로 되였다. 모든것이 《敦. ㄷ》로부터 시작되었다. 《敦. ㄷ》가 발전하여 반제청년동맹으로 되고 공청으로 되였다.

공청이 키워낸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 반제청년동맹이 이루어놓은 우리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곧 당창건의 기초로 되였다. 공청이 창립되고 그것이 강력한 전위조직으로 혁명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선행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범하였던 오류들을 극복하고 대중전취와領導예술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발양된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혁명적인 투쟁기풍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한 원동력으로 되였으며 후날 우리 당의 네으로 되고 기개로 되였다.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는것은 카룬회의를 계기로 하여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을 정립해놓은것이였다. 카룬회의 결정에는 《敦. ㄷ》와 공청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원칙으로 삼아야 할 전략들이 명시되어있었다. 그것은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상적기초로 되였으며 실패와 좌절의 진통속에서 오래동안 갈길을 찾아 암중모색하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상 지침으로 되였다.

지도사상, 領도핵심, 군중지반, 이것은 당조직을 내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요소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이 요소들을 다 갖추고있었다.

우리는 1930년 7월 3일 카룬의 진명학교 교실에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최효일동무들로 첫 당조직을 무었다.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김리갑, 김형권, 박근원, 리제우동무들도 첫 당조직성원으로 되였으며 조선혁명군 대장으로 내정되어있던 리종락과 박차석도 이 조직의 성원으로 되였다.

진명학교는 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진 자작툰 앞벌에 있었다. 학교의 동쪽과 남쪽에는 5~6정보가량 되는 개벼들밭이 펼쳐져있었고 벼들밭가운데로는 무개하라는 큰 개울이 동남방향으로 흐르면서 학교를 에워싸고있었다. 학교동쪽에서부터 마을까지는 늪과 진펄이였다. 진명학교로 오갈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서쪽밖에 없었다. 길목에서 경비만 잘 서주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르게 되여있었으며 설사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개벼들밭으로 빠지면 종적을 찾을수 없게 되여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선군과 군사강국

지난해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한 행사장에서는 이런 말이 격조높이 울리였다.

《위대한 김정일각께서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날로 로골화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백승의 기치이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려면 선군정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면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국호마저 잃었던 조선이 오늘은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세계무대에 우뚝 올라선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선군에 있다.

선군은 우선 인민군대를 무적 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준비시키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령도의 자우를 새기심으로 써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선군의 기치따라 더 장엄하게, 더 출기차게 굽이칠수 있게 하시였다.

그러나 그 나날들에는 간고한 시련의 시기도 있었다. 1990년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화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책동의 화살이 조선에 집중되었다. 민족의 대국상파 련이은 자연재해로 조국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욱 높이 추켜드신것은 선군의 기치였다.

반미대결전의 최전방인 판문점이며 오성산의 위험천만한 칼벼랑길, 적초소가 쿄앞에 바라보이는 351고지며 자그마한 폐속정으로 솟구치는 파도를 해쳐야 했던 초도의 배길 등 찾아가시는 초소마다에서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을 만나주시고 사회주의

질 좋은 합성가죽 생산을 위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 해가려는 열의 속에 평성 합성 가죽 공장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고 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일군 리의 선이 말한 것처럼 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크나큰 긍지를 안고 200일 전투에서 충정의 로력적 위훈을 세워가고 있는 속에 능력이 큰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갖추어놓은데 맞게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따라세워 높은 생산장성을 이루고 있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생산공정들을 보다 현대화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부직포를 생산하는 1직장과 건식, 습식 합성가죽 생산으로 들끓는 3직

장, 평성애국가방공장 등을 돌아보며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1직장에서는 부직포 생산이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다.

직장장 김룡건은 말하였다.

『당 제7차대회 결정 판철을 위해 지금 우리 직장에서는 부직포 생산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면서도 공장적으로 진행되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 이미 현장에 구축된 생산과 경영활동의 통합 생산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옮겨세우는 사업을 비롯하여 오래된 설비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결실이 대단히 좋다.』

그러면서 그는 그 나날에 모든 종업원들이 크게 체득한 것 이 있는데 그것은 제힘을 믿고

달라붙는다면 얼마든지 그 어떤 어려운 과제도 자체로 해낼 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게 된 것이며 그로 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 실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신심을 더 굳게 하여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런 관점과 입장에 서서 적지 않은 낡은 설비



들도 새 설비 못지 않게 개조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건조로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도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

3직장에서도 1직장에서 와 마찬가지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합성가죽 생산공정에서 중요한 건조로를 새 기술을 도입하여 개조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원료, 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려 합성가죽의 손맛과 땀뻘성, 당김과 구부림 세기 등의 개선 방법을 새롭게 확립하고 조종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신발걸감과 안감, 난연성(열견딜성) 합성가죽, 체육기자재용 합성가죽 등 여러 가지 용도의 합성가죽 생산기술을 받아들여 합성가죽의 다색화, 다양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공장에 있는 평성애국가방공장에서도 현행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면서도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사람들의 수요가 높은 인기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의 힘으로 재단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해 가고 있다.

리의선은 말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질 좋은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장에 어려워하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전설 같은 인민사랑을 길이 빛내여나가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말씀을 무조건 판철해 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공장에서 생산한 합성가죽으로 만든 제품들의 일부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밟들고 -

청춘과원의 과일대풍

끌간데 없이 펼쳐진 파수의 바다에 가을이 왔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대동강파수종합 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 풍이 들었다고 농장의 근로자들 누구나 이만저만 기뻐하지 않는다.

과일나무의 가지마다에 땅이 꺼지도록 무수히 달린 사과알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가슴은 지난해 8월 자기들의 농장을 찾

으시여 세계굴지의 청춘과원, 인민의 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킬데 대한 파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 깊은 조치도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에 북받쳐있다.

이들은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5개 호동의 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50여정보의 파수밭을 더 조성하였을뿐만아니라 봄철부터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정보당 계획된 양의 비료와 40t이상의 질좋은 거름을 주기위한데 총력을 기울이였다.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많이 오는 올해의 불리한 기상기후조

건에 맞게 과일나무들의 병해충 구제를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갔으며 일덧비료주기, 열매솎음, 3회이상의 김매기도 질적으

로 하였다.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농장에서는 우리 나라 품종들을 비롯한 수십종의 사과가 땅이 꺼지게 달리였으며 수확고는 지난해 보다 훨씬 뛰어오르게 되였다.

사과맛도 지난 시기에 비하여 상당히 좋아졌을뿐아니라 한알

당 무게가 보통 30g이나 더 늘었다고 한다.

농장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일 절반, 사과 절반이라고 하시면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속에서도 레년에 없는 과일대풍이 이룩된것은 나라가 흥

할 징조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만족한 미소를 가슴에 안고 앞으로도 더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과학적인 축산체계를 확립한 공장



대동강돼지공장은 파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구축되어있는 규모가 큰 축산물생산기지이다. 공장에는 모든 생산공정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있다.

공장에는 종축호동, 육성호동, 비육호동을 포함한 덩지큰 6개의 호동과 통합조종실, 고기 가공장, 배합먹이가공장, 분만수정호동, 수의방역실, 고기보관행동고를 비롯해서 돼지의 사양관리와 고기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이 그흔히 갖추어져있다.

공장에는 유기질복합비료직장도 있다. 파수와 축산, 축산과 파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 맞게 직장에서는 수천t의 유기질복합비료와 수만t의 질좋은 돼지물거름을 생산하여 대동강파수종합농장에 보내주고있다.

공장의 돼지먹이공급체계와 고기생산체계는 자동화, 흐름선화되어있다.

공장에서는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 나오는 심장, 발쪽, 불살, 꼬리, 혀 등 부산물을 가지고 여러가지 가공품들도 생산하고있다.

지금 공장에서 자래우고있는

돼지는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고 고기맛이 좋아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돼지우리마다 집약형사양관리방법을 받아들여 돼지사양밀도를 높이면서도 육성률을 95%이상 보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우량품종육종체계를 확립해놓고 과학적인 새끼 돼지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새끼 돼지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이고 있다.

새로운 식물성먹이첨가제, 광물질대용먹이첨가제를 연구개발

하고 배합사료보장을 비롯한 합리적인 먹이처방을 찾아내여 사료단위를 낮추면서도 돼지의 증체률을 높이고있다.

공장에서는 과학적인 면역접종체계와 수의방역대책도 세워놓았다.

돼지공장에서는 우량품종의 돼지들을 더 많이 육종하여 가까운 년간에 고기생산을 더 늘이고 고기기공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유기질복합비료도 생산한다.

포다시 세계가 보게 될 전화위복의 새 기적

뜻깊은 올해를 로력적성파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지난 8월 함경북도 북부지구에 해방후 관측된적이 없는 돌풍이 불어치고 큰물이 들이닥치였다.

8월 29일부터 북부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대줄기 같은 비는 이를동안 순간도 그침없이 쏟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커먼 비구름장들이 낮게 떠돌며 폭우를 들부었다. 두만강이 범람하였다. 갈래를 셀수 없는 수많은 끌개물들이 누런 갈기를 치여들고 사품쳐내렸다. 산사태가 지는 무시무시한 소리, 온 천하를 뒤덮고 불어만 가는 탕수속에 함경북도 두만강연안의 6개 시, 군들과 라선시의 일부 지역이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

수만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6만 8 900여명이 한지에 나앉았으며 수백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900여동의 생산 및 공공건물들이 파괴 및 손상, 도로들에서 180여개소의 구간과 60여개의 다리 파괴, 100여개소의 철길로반 류실, 2만 7 400여정보의 농경지 류실 및 매몰, 150여개소의 강하천제방들과 여러군의 저수지언제, 방수로 파괴... 너무나도 엄청난 대재앙이였다.

그러나 불어치는 돌풍과 쏟아지는 무더기비에

졸지에 집파 세간, 혈육을 잃으면서도 인민들은 가정들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부터 목숨으로 보위하고 집안으로 흘러드는 물을 보면서도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들을 수호하였다.

례년에 없는 폭우로 혹심한 피해를 입고 정말 무슨 일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행기를 띠워 피해지역 상황을 료해 하도록 하시고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지역 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하여 난국을 타개할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곧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북부지역 피해복구전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라며 호소문은 큰물피해전투를 하나의 전쟁으로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려명거리건설, 세포등판과 물길공사, 혜산-삼지연철길건설을 비롯하여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였던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이 피해지역으로 달려갔다.

배로, 자동차로 달려간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군민협동작전으로 큰물피해복구전투를 올해안에 무조건 끝내고 피해지역인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마련해주기 위한 일대 격전을 벌리였다.



큰물피해
상황의 일부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새 기적,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해가고 있다. 주체105(2016)년 9월 촬영

철도성,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림업성, 금속공업성들이 건설자재보장사업을 선행시켜나갔다. 그리하여 9월 17일에는 복구된 철길로선을 따라 첫 열차가 무산역에 도착하였고 세멘트와 철강재, 피해복구물자들을 실은 열차들이 피해복구지역으로 련이어 달려였다.

평양시와 신의주시를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지원물을 실은 배들과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려갔으며 지원자들은 도착하자 즉시 피해복구의 삶을 박았다.

만리마속도가 나래치는 피해복구전역에서 인민

군인들이 진격로를 열어나갔으며 그 뒤를 따른 지원자들의 투쟁열기는 온 지역을 불도가니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다. 하여 3년 지어 5년이 걸려도 복구할것 같지 못하다고 하던 피해지역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갔다.

이제 세계는 지난해 라선지구에서 일어난 전화위복의 새 기적을 대재앙을 당한 함경북도 두만강연안의 시, 군들에서 또다시 보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유선화
사진 로동신문 현지보도반



대성산기슭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

경치아름다운 대성산기슭에 개진된 중앙동물원과 새로 일떠선 자연박물관을 찾는 인민들의 발길이 끊길 줄 모른다.

울부짖는듯 한 호랑이의 대가리를 형상한 동물원의 입구를 마주한 순간부터 사람들은 신통한 그 모습에 놀라움과 찬란을 금치 못한다.

웃음과 랑만을 주는 동물세계

사람들이 먼저 들어선 곳은 척 보기만 하여도

동물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중앙동물원이였다.

누구나 처음에는 선뜻 발걸음을 끊기지 못한다. 그도 그럴것이 100여정보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에 널려져있는 여러 동물관과 수십개의 동물사중에서 어디부터 가보아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때문이다.

그래도 사람들의 인기를 제일 끄는 곳이 파충관과 원숭이사, 개관, 동물재주장인듯 싶다.

멀리에서 보아도 거부기를 형상했다는것을

알수 있는 파충관에는 각이한 환경과 조건을 요구하는 동물들의 특성에 맞게 열대초원구역, 반사막구역 등 둔환경관람구역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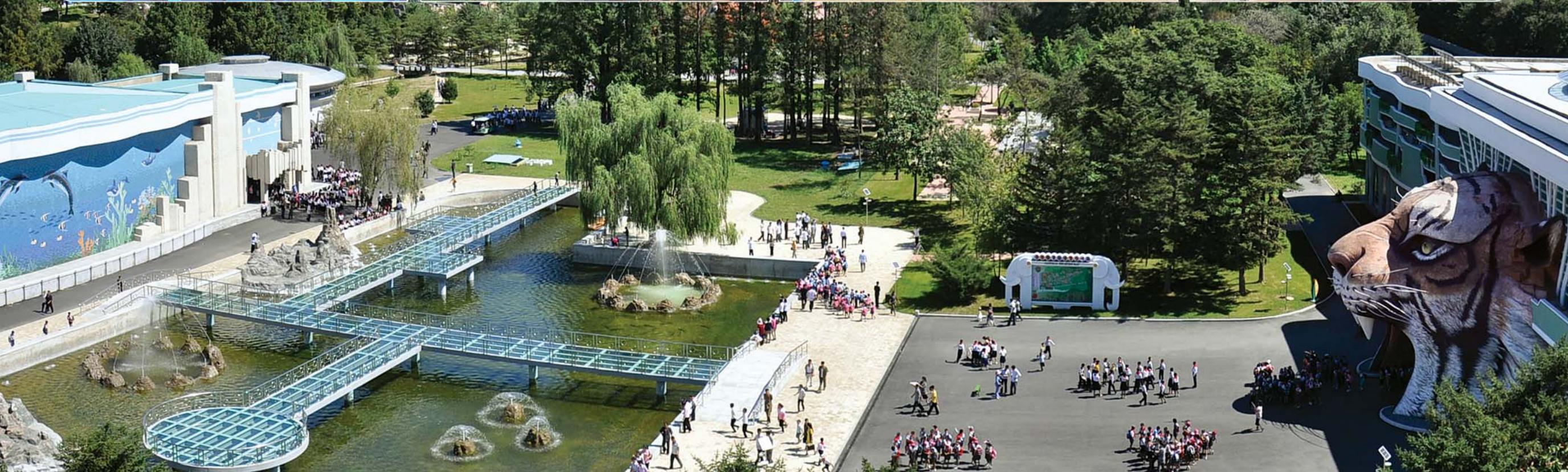
악어, 뱀, 거부기 등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사는 동물들의 모습을 다 볼수 있는 이 둔환경관람구역에서 사람들은 떠날줄 몰라하였다.

원숭이관에 들어서니 한가정으로 보아지는 원숭이들이 다정하게 놀고있었고 야외놀이장에서는 원숭이들이 인공바위와 돌산 등을 분주히 오르내리며 재롱을 부리고있었다.

개발통모양으로 일떠선 개관도 특색이 있었다. 거기에 들어서니 여러 종류의 개들을 볼수 있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각이한 모양과 색깔, 크기를 가진 귀여운 개들이 뛰놀고 벽면에

게시된 세계 여러 나라 개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의 폭을 넓혀주는 그림판들과 해설문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동물재주장과 성성이사 등에서 울려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컸지만 물범제주장에서 울리는 웃음소리는 동물원을 들었다놓았다. 물범의 둔돌리기로 시작되는 공연은 시작부터 관람자들의 웃음주머니를 흔들었다. 조교사의 손동작에 따라 공중에 있는 둔을 재치있게 통파하기도 하고 큰 고무공을 조약하며 주동이로 치는 재주, 앞발로 박수를 치는 모습은 사람들의 웃음을 끌없이 자아냈다. 특히 입에 문 공을 롱구둔안에 던져넣기재주는 공연의 절정을 이루었다. 둔에 공넣기가 실패할 때면 사람들속에서



는 아쉬움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고 끝내 성공 하였을 때에는 《야~》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공연을 본 평양중등학원 교원 정철심은 우리 원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중앙동물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그대로 웃음꽃을 피우는 인민의 문화휴식터, 동물세계의 풍부한 지식을 주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정말이지 펭귄새관, 조류관, 선물동물관들, 범사, 곱사 등 중앙동물원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사회주의 문명을 향유하는 인민들의 희열과 랑만에 넘친 모습을 볼수 있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 정창수는 중앙동물원을 돌아보고나니 마치 세계를 일주한것 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 좋은것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렇게 훌륭한 새 문명의 세계를 펼치였다.》





폭넓은 지식을 주는 환상세계

우주관, 고생물관, 동물관, 식물관, 전자열람실 등으로 되어있는 자연박물관은 중앙홀부터가 특색있었다. 시뻘건 용암이 이글거리며 흘러내리는것 같은 모습을 배경으로 유라기에 존재하였던 실지 크기의 공룡들의 골격들과 하늘을 나는 익룡들을 형상한 모형은 상상으로 그려보군 하던 공룡시대를 눈앞에 펼쳐놓은것만 같았다.

중앙홀을 지나 우주의 진화, 태양계의 형성, 태양이 지구에 주는 영향, 시간과 날자 등에 대한 자료들이 형광도판을 비롯한 특색있는 장치들로 전시되어있는 우주관은 그대로 볼만하였다.

특히 투영설비를 리용하여 지구의 형성과정,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의 운동, 밤하늘의 별자리 등을 보여주는 천체관람실,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느낌을 자아내는 대형 바닥전광판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마치 무한대한 우주를 날으는것만 같은 상상을 가지게 하였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월향동에서 살고있는 한 칭미는 말하였다.

《마치 우주를 탐험한듯 한 기분이다. 지구와 행성들의 끊임없는 충돌로 뜨겁게 달아오른 지구겉모습을 보여주는 반경화 하나를 통해서





대, 중생대, 신생대의 구획으로 나뉘어진 고생물관에는 지구의 환경과 생물과의 관계, 첫 다세포생물의 출현, 털코끼리화석, 인류의 기원 등을 보여주는 많은 화석자료와 도판,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실지 움직이고 소리도 지르면서 먹이활동을 벌리는 공룡모형들을 전시한 공룡공원과 당시의 신생대바다환경을 그대로 재현한듯 한 대형 바닥전광판을 통하여 참관자들은 그때의 환경을 실지 체험해보고 있었다.

도 원시상태의 지구에 대한 표상을 정확히 가질수 있게 한다.》

그런가 하면 시생초대 및 원생초대, 고생

분류별로 체계화하여 생동하게 전시한 동식물표본들과 박제품 등을 보기도 하고 텔레비죤과 손접촉식콤퓨터를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의 종류와 생태, 분포,



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과학지식을 배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진지하였다.

우리와 만난 자연박물관 관장 리원익은 박물관을 돌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에 넘쳐 신비의 세계속에 사로잡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 모르겠다, 폭넓은 지식을 배워주는 곳이다고 흥분된 심정을 터친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5월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연박물관설정형을 료해하시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보다 폭



넓은 지식을 출수 있는 교육장소로 되게 꾸리며 학술적으로, 미학적으로 더욱 세련시킬대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과학성, 실용성, 친절성의 원칙에 립각하여 박물관을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연박물관은 오늘 이렇게 특색있는 과학지식보급기지로 일떠서게 되였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윤혁

만 사람을 격동시킨 가극



지난 4월말부터 평양대극장은 사람들로 둄비였다.

한것은 이곳에서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공연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번, 두번, 지어 다섯번째로 이 가극을 보려 온다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나 가극에 대한 이야기와 백번 듣느니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이 가극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

김일성종합대학 6학년 학생 차진철은 두번, 평양교원대학 3학년 학생 박수영은 세번이나 이 가극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이 가극을 보고 실효모임까지 가지였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어떤 청년들은 가극에서 나오는 노래들까지 벌써 새기고 즐겨부르고 있다고 한다.

하다면 이 가극의 견인력은 어디에 있는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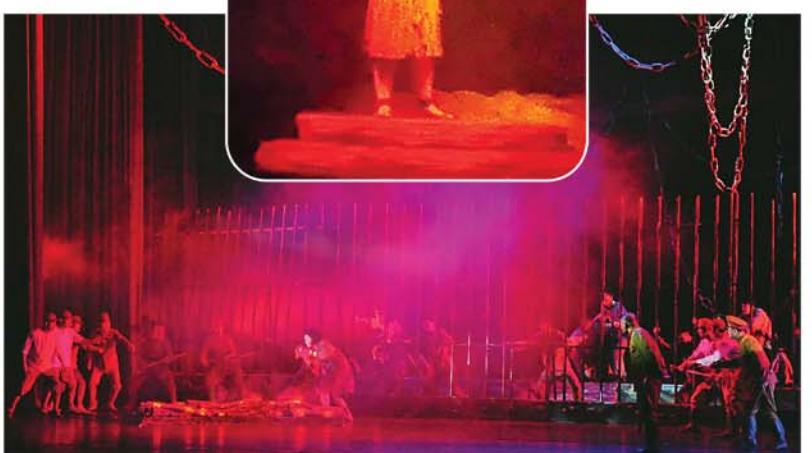
그것은 가극의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다.

가극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사령부의 안녕과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장렬한 최후를 마친녀투사 최희숙에 대한 실재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원형에 기초한 가극은 신념문제를 기본주제로 내세우고 그에 심오한 철학적사색과 진실하고 감명깊은 형상으로 대답을 주고 있다.

가극의 첫시작에서부터 주인공이 겪게 되는 국적체험은 어느것이나 보통인간이



라면 열백번도 주저앉아버릴수 있는 험난한 시련들이다.

제작할 군복천도 먹을 쌀도 떨어진 재봉대밀영, 적들의 탄압으로 지하조직들까지 모두 파괴되어 어디서 도움을 받기도 힘든 실로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졌을 때 사령부에 제기하여 군복제작기일을 미루자는 궤변까지 튀여나왔지만 주인공은 돌에서 실을 뽑고 뼈를 갈아 바늘을 만들어서라도 사령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토로한다.

주인공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체포된 남편이 《전향》하였다는 모략소식에 접하였을 때에도, 적들의 습격으로 한대밖에 없는 재봉기와 밀영이 불타버렸을 때에도 오직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혁명임무만을 생각하면서 굴함없이 일떠선다. 그래서 자

기 가 직접 지하공작을 나가 수많은 군복천을 해결해 가지고 오기도 한다.

그 과정에 주인공은 그만 적들에게 체포된다.

김원균명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은 재능있는 예술인후비들을 많이 배출한것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다. 모란봉악단, 청봉악단을 비롯

하여 조국의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들의 대부분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다.



민족악기교육에 힘을 놓는다.



지난 기간 국제콩쿨들에서 특등상과 1등상을 받은 유별미, 마신아, 한일영 학생들도 현재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40여년의 연혁과 중등교육, 고등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는 학원에는 민족기악, 성악, 양악기 악학부를 비롯하여 5개 학부에

막을 내리지만 관중들의 가슴속에서는 막이 내릴줄 모른다. 관중들은 혁명은 신념이고 신념은 승리이라는 철리를 가슴깊이 쪼아박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더없는 정의이고 량심인 신념은 그런 삶을 죽음보다 못한 치욕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으로 여긴다. 바로 그래서 투사는 딸에게 엄마는 없어도 크나큰 사랑이 너를 지켜준다고 노래하면서 해방된 그날을 그려보며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주인공은 험난한 역경에 처할 때마다 절절한 그리움과 걱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금반지를 정히 꺼내보군 한다. 그것은 그대로 그에게 천백배로 용솟음치게 한 힘이였다.

하기에 적들이 주인공을 결박하고 심장까지 도려냈지만 그는 웃으며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치는것이다.

4개의 장과 종장으로 되여있는 공연은 2시간정도 진행하고

막을 내리지만 관중들의 가슴속에서는 막이 내릴줄 모른다. 관중들은 혁명은 신념이고 신념은 승리이라는 철리를 가슴깊이 쪼아박게 된다.

공연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항일빨찌산대학, 신념의 교정을 나온것만 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만약 내가 너투사와 같은 저런 모진 고문을 당했다면 어떻게 행동했겠는가, 너투사의 모습을 거울로 삼고 생활해 나가겠다고 저저마다 이야기하고 있다.

지어 공연을 본 프랑스의 한 관광객마저도 《말이 통하지 않지만 나는 가극을 울면서 보았다. 조선에 이런 훌륭한 가극이 있는줄 정말 몰랐다. 이런 공연을 우리 나라에 와서 진행하면 큰 파문을 일으킬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솔미

예술인후비 육성의 원종장

어머니가 걸어온 길



개별강의도 진행한다.

20여개의 강좌가 있다.
학원의 일군인 김광주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학원에서는 창광유치원, 경상유치원, 대동문유치원을 비롯하여 여러 유치원들에서 음악적 소질을 가진 어린이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주고 있다. 예술교육에서도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잘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도 전공분야에 정통한 유능한 예술인재로 키워 낼수 없다.』

학원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의 중점을 기초

학생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교수토론회



이와 함께 학원에서는 교원, 학생들의 기량발표회를 자주 조직하여 자질과 실력을 높이고 있으며 특출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집중교육을 강화하고 그들을 국제, 국내 콩쿨들에 적극 내보내어 예술적 재능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

오늘 예술인후비 육성의 원종장인 학원에서 공부하려는 지망자가 날이 늘어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훈련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민족기악학부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기초훈련지도를 그들의 구체적인 심리에 맞게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조선장단을 파악하는데서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 타법훈련을 소홀히 하고 노래연습곡들에만 치우치는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개별적 학생들의 연주형상 수준을 놓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중점을 두고 과제도 제시하

고 련습곡들도 학생들의 동심에 맞게 선정하며 장단리듬을 계속 변화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지루감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타법훈련에 재미를 불어도록 련습곡들과 근사한 작품들을 그들 자신이 선택하고 련습하도록 하고 있다.

성악학부에서는 성악교육의 기초인 호흡훈련을 잘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교원들은 매 학생들의 인식 능력과 준비 정도에 맞게 과정안을 세분화하여 호흡과 소리의 일치, 호흡과 률동의 일치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각별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원에서는 교원, 학생들의 기량발표회를 자주 조직하여 자질과 실력을 높이고 있으며 특출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집중교육을 강화하고 그들을 국제, 국내 콩쿨들에 적극 내보내어 예술적 재능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

오늘 예술인후비 육성의 원종장인 학원에서 공부하려는 지망자가 날이 늘어나고 있다.



박사 부교수 김옥

미래과학자거리의 미래동 27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한소연은 어머니날(11월 16일)까지 꺼날자가 있지만 벌써부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항상 교단과 과학연구사업밖에 모르는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온연 중 그의 눈앞에는 근 30년간을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의 교단에 서 있는 어머니의 지난날들이 안겨들었다.

한소연의 어머니 김옥이 교원으로 된 것은 주체78(1989)년부터였다. 김옥이 교원을 지망하게 된 데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주체49(1960)년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을 모시고 제1차 전국천

리마작업반 운동선구자대회가 있었다. 그때 대회에 참가한 자강도 산골군의 한 처녀교원은 토론에서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에 한생을 바쳐갈 결의를 다지였다. 그 처녀교원이 바로 김옥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처녀교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의 맹세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있던 김옥의 어머니는 그 후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그들이 교단에 서기를 마음 속으로 바랐다.

어머니의 그 소원을 가슴에 어느 해인가 겨울방학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온 한 학생이 다리를 상한 적이 있었다. 밤이 깊어 1시가 되어 오지만 그는 지체 없이 역으로 나가 그 학생을 업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왔다.

(내 한생을 교단에 서서 인재 육성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리라.)

그가 교단에 서서 제일 천착적인 관심을 돌린 것은 학생들의 나이와 준비 정도에 맞게 지식의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작업이었다. 때로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일요일의 하루를 도서관에서 보내기도 하였고 때로는 필요한 참고서적을 구하기 위해 밤길을 걷기도 하였다. 그 날에 그가 본 책들이 얼마나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별로, 부문별로 정리하느라 지새운 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리고 매 학생들의 특기를 적극 살려주기 위해 그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교원들의 개별지도도 받게 해주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는 교원이기 전에 다심한 어머니였다. 어느 해인가 겨울방학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온 한 학생이 다리를 상한 적이 있었다. 밤이 깊어 1시가 되어 오지만 그는 지체 없이 역으로 나가 그 학생을 업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왔다. 그 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이면 색다른 음식을 해 가지고 그 학생을 찾아갔고 저녁이면 저녁 대로 그의 학업 성적이 떨어질 세라 개별 강의도 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생일날과 명절날이면 오늘같은 날 집과 부모형제들이 얼마나 그립겠는가고 하며 그들을 집에 데려다 같이 명절을 쇠기도 하였으며 생활에서 잘못을 범할세라 따뜻이 타일러도 준 그였다.

언제인가 소연이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한 것만 같아 투정을 한적이 있었다. 그때 김옥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소연아, 내가 배워주는 학생들이 얼마나 귀중하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그

밤늦도록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



처럼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정 보산업시대의 오늘을 내다보시고 컴퓨터수재들을 양성하는 학교까지 나오지 않으셨느냐. 바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와 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인데 앞으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기둥들이란 말이다.』

그런 그였기에 그의 손에는 언제나 강의안이 들려있었다. 한번은 한 교원이 강의안을 가지고 퇴근길에 오른 그에게 물었다. 수십년동안 그 과목에 대한 강의를 해온 선생이 그 과목을 손금보듯 꿰들고 있겠는데

집에서까지 강의안을 연구해야 하는가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교원은 강의준비를 잘해야 강의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거든요. 병사가 싸움준비를 잘해야 전투에서 이길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

해요.』

대학의 교원들과 학생들속에서는 어느 학생이든 그의 손탁에만 들어가면 실력이 높아지는 것이 눈에 띄게 알린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이것은 그의 높은 실력과 후대교육사업에 바치는 깨끗한 량심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그는 이렇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훌륭한 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냈을뿐 아니라 체육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도 내놓았다. 나라에서는 그를 박사 부교수로 내세워주었고 국가적인 대회의 대표로도 불려주었다.

...

교육자로서의 어머니한생을 돌이켜보는 소연의 눈앞에는 어머니날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어려왔다. 어머니의 기쁨은 훌륭히 성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것이였다.

소연은 어머니의 제자들에게 초청장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기쁨으로 된다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식

홍문관

홍문관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유교사상의 연구, 선전 및 국왕의 학술고문역 할을 하여 왕실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던 중앙관청을 말한다. 옥당, 옥서, 영각, 서서원, 청연각이라고 하였다.

고려초기에는 숭문관이라는 중앙관청을 설치하고 학사를 임명하여 유교의 연구, 선전 및 국왕의 학술고문의 역할을 하게 하다가 995년에 이관청을 홍문관으로 고쳤다.

홍문관은 봉건통치체들이 매우

중요시한 중앙관청의 하나였던것만큼 그 관리로는 왕의 신임을 받는 높은 문벌출신으로서 학술적권위가 있는 문반출신량반들만이 임명될수 있었다.

홍문관은 1894년 갑오개혁때 경연청과 통합되어 궁내부에 소속되었고 한때 경연원이라고 하였다가 1897년 1월에 홍문관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07년에 폐지되었다.

* *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길시지부 리순희동생 앞

보고싶은 동생에게

만 아직 아픈데 없이 건강하오. 아들 승근이 내외도 잘 있소.

참, 그새 우리 가정에는 변화가 있었소. 승근이가 미림승마회사 부원으로 되였고 며느리는 미래과학자거리에 있는 한 상점의 책임자로 일하고있소.

요새 그애들은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소.

동생도 알겠지만 지금 조국에서는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소. 조국인민들은 만리마를 탄 기세로 공장과 농촌, 광산과 탄광 등 그 어디에서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소. 인민들의 그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조국의 모습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고있소.

그 애들도 오늘의 200일전투의 성과여부는 자기들 매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맡은 일에 여간 극성이 아니요.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 일터에 모신 영광을 지닌 며느리가 그이의 인민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데 그 열성이 대단하오.

밤이 깊어서야 집에 들어서는 그 애들을 9살난 손녀 영연이가 노래를 불러 고무해주고있소. 자기도 한몫 한다는거요. 얼마나 기특한지.

영연이는 공부도 잘하고 이젠 페아노도 제법 잘 탄다오. 요샌 탁구까지 배우고있소. 정말이지 우리 가정에서 큰 기쁨은 영연인가 보오.

동생, 하고싶은 말을 편지에 다 쓰자면 끝이 없을상실소. 언제면 다시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눌수 있겠는지. 조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조카랑 다 같이 왔으면 좋겠소. 며느리가 동생이 조국에 오면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룽라곱등어판이랑 자기가 직접 안내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수 있게 하겠다고 하며 나보다 더 동생을 기다리고있소.

동생, 이 언니가 부탁하고싶은것은 건강에 류의하라는것이요. 건강해야 통일애국사업도 잘해나갈수 있고 우리하고도 뜻깊은 상봉을 할게 아니요.

그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이만 편을 놓겠소.

평양시 대동강구역 청류1동 29인민반
리영순언니로부터



대동강반에서 느끼는 대동강맥주 맛의 진미

지난 8월 12일부터 약 한달동안 평양의 아름다운 대동강반에서 대동강맥주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조국에서 처음으로 펼친 평양대동강맥주축전에는 수많은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참가하였다.

식당배 《대동강》호와 유보도에서 대동강생맥주를 각종 료리와 함께 봉사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진 훌륭한 맥주, 동방최고의 맥주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축전준비위원회 일군인 로한현은 이번 축전에는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대동강생맥주가 출품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동강주는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지만 조국인민들과 외국인들속에서 독특한 맛과 뛰어난 품질로 하여 호평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7가지의 생맥주중에서 어느것이 제일 인가를 놓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교구역에서 살고있는 한 손님은 100% 보리길금을 이용한 1번이 색도와 맛에서 제일이라고 하였고 다른 한 손님은 70%의 보리길금에 30%의 흰쌀을 이용한 2번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 손님은 50%의 보리길금과 50%의 흰쌀이 배합된 3번이 흰쌀의 깨끗하고 상쾌한 맛과 보리길금의 부드러운 맛 그리고 적당한 쓴맛이 조화롭게 배합되었다고 하면서 맥주의 번호가 결코 등수가 아니라고 하였다.

중구역에서 살고있는 한 여성은 풍성한 거품



축전장을 찾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과 황금색빛깔이 특징인 5번이 입속에 은근히 남는 향과 맛의 여운이 특별히 좋다며 제일이라고 하였다.

4번과 6번, 7번 생맥주애호가들도 자기들의 론거를 펴며 제일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대로 옷을 고르듯이 맥주



도 자기 입맛에 맞는 맥주를 골랐다. 이렇게 놓고 볼 때 1번부터 7번까지의 대동강생맥주는 각이한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만족시키는 완벽한 맥주라고 할수 있다.

축전에서는 예술공연과 맥주맛보기경연, 맥주상식무대도 진행되어 축전장의 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다. 특히 맥주맛보기경연에서 1등을 하여 대동강생맥주를 상으로 받은 손님에게 사람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서성구역 상홍동에서 살고있는 림성철은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조국을 어찌보려고 극악한 경제제재와 <울지 프리덤 가디언>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때에 이렇게 맥주축전을 펼쳐놓고 식당배 《대동강》호에서 대동강반의 아름다운 밤경치를 부감하면서 대동강생맥주의 진미를 맛보고 있는데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고향소식

남다른 자랑이 많은 고장



송화유치원의 최력어린이는 문학신동으로 알려졌다.



송화군 청소년체육학교에서



송화군 인민병원에서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취재 길은 이번에 황해남도 송화군으로 향하였다. 한 것은 얼마전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함께 과학 기술전당에 갔을 때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이 송화 군이라고 하던 한 동포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천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군이 과연 어떻게 변모되었을가 하는 호기심을 안고 우리가 군에 도착하니 군의 일군 김봉길이 마중나와 있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원래 자기 군은 파일로 소문이 났지만 그보다도 군을 홀륭히 꽂피워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소개해달라는 것이였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군청소년체육학교부터 먼저 찾았다.

학교에 들어서니 김봉길이 자랑할만도 하였다. 체육계에서 이름없던 송화군이 지난 몇해동안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사격경기에서 1등을 한것이였다. 우리가 사격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들에게 사진기의 초점을 맞추는데 그들속에서 《어마나, 빠스에서 만났던 기자선생님들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보니 정말 그랬다. 양명성, 표현일, 김향 등 그들은 송화군으로 올 때 우리와 한빠스를 탔었는데 온 나라에 이름을 날린 사격선수들이라는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다. 한명, 두명 선수들모두의 얼굴과 훈련모습을 사진기에 담으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의 얼굴이 그리도 밝았고 그리도 궁지에 넘쳐있었구나.)라고.

읍에 있는 군식료공장과 일용품공장, 기계공장과 건재공장, 종이공장과 제약공장들에 이어 우리는 군인민병원도 돌아보았다. 병원에서 우리가 놀란것은 기술부원장 하희룡이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는것이였다. 군에서는 그가 명의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척추병에 속하는 추골 동맥순환부전을 비롯한 척추병환자들을 약물이 아니라 수기치료로 고치고 있었는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병글벙글 웃으며 병원문을 나서고 있었다.

우리가 읍에 있는 송화유치원을 찾았을 때였다.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꾸려진 유치원에 들어서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낫은반어린이들과는 달리 높은반어린이들은 우리말을 배우고 있었다. 그런데 맨 앞책상에 앉은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작은 어린이는 글을 배우는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있었다.

의문을 안고 그 애를 바라보는데 유치원원장이 우리에게 저 애가 바로 온 나라에 소문을 낸 기억력명수, 즉홍시창작가 최력이라고 알려주는것이였다. 3살때부터 유치원에 다녔다는 최력은 얼마나 기억력이 비상한지 말을 채번지지도 못하는 3살때에 세계지도를 척척 보아 사람들을 놀래웠고 속셈과 글짓기는 물론 외국어 단어도 1 000여개나 소유하고 있다는것이였다.

호기심이 우리를 자극하였다. 우리는 력이에게 여러가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애는 물어보는 모든 물음에 참으로 정확히 대답하였다. 또 한명의 수재를 보는 기쁨에 가슴마저 흐뭇해지고 그의 부모마저 만나보고 싶어졌다.

그 심정을 알고 원장이 우리를 이끌고 미래원과 송화소학교를 거쳐 최력이네 집으로 향하였다. 그

최력이네 집에서는 많은 파일나무를 심어가꾸고 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옛 처지를 잊어버리고 우쭐대는 꼴을 비웃어 이르는 말.

-미꾸라지국 먹고 룽트림한다

① 변변치 않은 미꾸라지국을 먹고 거드름을 피우며 큰 트림을 한다는 뜻으로 자그마한 일을 해놓고 무슨 큰일이나 한것처럼 뽑내는자를



송화군 미래원에서

러나 우리는 력이의 집에서 그 애의 어머니를 만나 아들애와 관련한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기 바쁘게 아예 집주변환경에 빠져들고 말았다. 사파, 배, 복숭아, 감, 살구, 대추, 포도, 추리 등 갖가지 파일나무들속에 묻혀있는 력이네 집은 하나의 파일동산을 방불케 하였던 것이다. 빨갛게 익어가는 사파, 감, 대추를 감탄속에 바라보는 우리에게 력이 외할머니는 말하였다.

『수십년전에 파일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북청학대회의가 있은 다음 온 군이 수백정보의 야산파 언덕들을 파일동산으로 만드느라 부글부글 끓었댔지. 그때부터 령감과 짬이 나는대로 집에도 한그루, 두그루 파일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천그루남짓하게 우리 집주변을 뒤덮었소구려.』

어느곳에 가보아도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한 자랑이 넘쳐나고 그것을 꽂피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였다. 더욱 변모될 군의 모습을 그려보며 송화온천에서 쌓인 피로를 풀 우리는 다음취재지로 향하였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도 못한자가 제노라고 우쭐렁거리는 꼴을 비웃어 이르는 말.

-빈 달구지소리가 더 요란하다

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아는체한다는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

-자랑쟁이에게 흥이 더 많다
제 허물도 모르고 제 자랑 잘하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

조선속담 (자고자대)

풍자하여 이르는 말.

② 못난것이 잘난체하는 경우를 풍자하여 이르는 말.

-민총이 쏙대에 올라간듯

보잘것없는자가 잘난듯이 우쭐대는 모양을 비웃어 이르는 말.

-범없는 곳에 토끼가 스승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되지

* * *



조국의 품에 안겨

조국을 위해 성실한 땀을



김용신

주체 48(1959)년 12월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조국애로의 귀국이 실현된 때로부터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품에 안겼다.

그 나날 그들의 생활에서는 놀라운 전변이 이룩되었다.

누구는 영웅, 누구는 인민배우, 박사...

체육성 국장 로력영웅 김용신(68살)도 그중의 한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실체험을 통해 깊이 느끼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일본에서 보낸 소년시절을 잊지 못해하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안되던 때 그는 조선아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일본아이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민

족적의분이 솟구쳐올랐다.

그후 그는 조선학교에 다니게 되었으며 주체 54(1965)년 9월에는 귀국선에 폼을 싣게 되었다.

조국에 첫발을 내짚었을 때 그는 전쟁의 피해를 가지고 천리마대고조의 기상이 나래치는 조국의 모습과 함께 서로 돋고 이끌며 일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체험하게 되었다. 어디 가나 집단과 동무들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바로 그 사랑의 바다는 용신의 몸도 포근히 감싸안았다.

나라에서는 홀로 조국에 온 그가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꽂 퍼울수 있도록 김일성종합대학에 보내주었으며 졸업후에는 현실체험을 거쳐 체육성의 일군으로 일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생활에서 불편이 있을 세라 살림집도 무상으로 배정해주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은 김용신부부



받아안는 사랑이 더해갈수록 그의 보답의 마음도 커만 갔다.

그는 체육선수들의 육체적 및 기술적준비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마련하기 위하여 사색을 거듭하면서 체육설비들을 개선하였으며 혼련기재를 현대화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가 마련한 기재들은 선수들의 호평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후더운 땀도 흘리고싶었다. 그래서 최근 후이면 광복거리, 통일거리를 비롯한 건설장들에 달려나가 근로의 성실한 땀을 한껏 흘리였다.

조국을 위해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 하고싶은것이 그의 마음이였다.

그래 마음먹은것이 조국을 위해 자기를 다 바쳐 싸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친혈육된 심정에서 돌봐주는것이



사업토의를 하는 김용신

였다.

그는 수첩에 수많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이름을 적어 가지고 다니며 명절날, 일요일 매번 꼭꼭 그들의 집에 들려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따뜻이 돌봐주었다.

자기 집에 새 텔레비죤, 새 옷, 새 가구가 생겼을 때도 그는 그것을 고스란히 안고 그들을 찾아가곤 하였다.

『한번은 제가 딸딸 성옥이의 결혼식에 쓰려고 레장감을 마련했댔는데 아니 글쎄 남편은 갓

상식
혜그밀사사건

혜그밀사사건은 1907년 혜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 회의에 황제 고종이 비밀리에 자신을 파견한 사건을 말한다. 일제침략자들은 1905년 11월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때인 1907년 6월에 네데를란드의 혜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였다. 고종은 이 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의 비법성을 폭로하고 세계의 정의와 양심에 호소하는 한편 혈강들의 힘을 빌어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전 평리원검사 리준, 전 의정부 참찬 리상설, 전 로씨 야주재 조선공사관 서기 리위종 등 애국지사들도 이 회의에 참가하여 일제의 『을사5조약』의 날조와 침략책동을 폭로규탄하고 국제적여론을 환기시킨다면 능히 민족적 독립을 회복할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이리하여 리준일행 3명은 고종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사심없이 바쳐진 그의 마음을 조국은 남먼저 헤아려주었다.

나라에서는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그에게 주체 85(1996)년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였으며 국가적인 큰 대회들에도 불려주었다.

한번은 일본에 살고있는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다.

아들의 앞가슴에 빛나는 영웅메달을 쓸어보던 그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살고있는 동생들은 늘 경영난을 겪으며 세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너만은 덩실한 큰집에서 자식들을 다 대학공부시키고 영웅까지 되었으니 조선로동당의 은혜에 머리태를 잘라 신을 삼아 올려도 지성이 모자랄것 같다고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제날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저에게는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 한몸 진할 때까지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힘껏 일하겠습니다.』라고 김용신은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혜그에 도착하여 회의에 정식 조선대표로 참가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모략과 음모속에서 진행

된 이 회의에서 의장은 조선대표단의 참가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혜그에 있는 국제기자협회의 연단과 그곳에서 발간되고있던 여러 출판물을 통하여 조선에서 일제가 저지른 침략적인 범죄행위를 날낱이 폭로하고 그것을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해줄것을 세계 사회여론에 열렬히 호소도 해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리준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공모결탁한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책동에 자기 배를 갈라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이 사건은 그 어떤 강대국의 힘을 바랄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 * *

한생 변함없는 마음을 안고

『기자선생, 이제는 나도 그렇지만 우리로 친도 고독이나 갈수다. 그러나 아예 힘이 없는 건 아니외다. 그래 로친과 남은 생에도 미력하게 나마 민족을 위하여 끝까지 일해가자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은 한생 푸르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를 위해 재중조선인예술단후원단 성원으로 고국에 왔던 재중동포 전태섭로인이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의 나이가 올해 92살이라고 한다.



우리와 만난 전태섭로인은 애국사업에는 집 사람(전 네안시지부장 리보배)이 보다 열성이 높다고 하면서 자기보다 보배로인칭찬을 더 하였다.

집사람이 지금은 고문격으로 지부사업을 하지만 실지는 지부사업을 할 때보다 더 극성을 부린다는 것, 지부를 보다 화목하고 단합되게 하기 위해, 지부안의 동포들모두가 자기 가정과 조국을 하나의 뉴대로 잊고 동포사업과 애국사업에 헌신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였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마다에는 태섭로인의 숨은 노력이 더 깃들어있다고 동포들은 말했다. 실지로 안해의 더없는 방조자가 되여 언제나 집사람을 밟들어주고 도와주며 길동무가 되여주는 그의 노력이 있어 보배로인의 성과가 있는것이였다.

태섭로인내외를 비롯한 로인들이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재중조선인예술단의 후원단으로 조국에 오게 된 사실만 보아도 그려하였다.

사실 재중조선인예술단후원단으로 태섭로인 내외를 비롯한 로인들이 꼭 오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후원단이라고 할 때 말자체로 예술단을 물심량면으로 후원하는 사명을 지닌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 임무를 로인들이 맡아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매우 힘든것이였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제를 보배로인을 비롯한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 목단강지구협회 부회장이며 계서시지부 지부장인 림명순, 무순시지부 지부장 김옥순을 비롯한 로인들이 맡아하였다. 태섭로인은 이 사업에서도 보배로인이 앞장서도록 적극 지지해주고 힘껏 떠밀어주었다고 한다.

근검절약하여 저축했던 돈을 아낌없이 조국과 동포조직을 위해 쓰는 그들부부의 소행을 보며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 하며 물었다고 한다.

당신들처럼 절약하여 저축한 돈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에 끌리고 당기여서 그렇게 인생말년에도 조국을 찾으며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가...

그때 그들부부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것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이 그립고 또 그리워서이다, 그이는 진정 위인중의 위인, 조선민족의 태양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의 기둥, 삶의 전부로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적은것이지만 마음속진정을 바치는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의 마음과 그것으로 일관된 그들부부의 애국의 마음은 진정 아름답고 소중한것이다.

한생을 변함없이 서로 돋고 이끌어주며 애국으로 발맞추어가는 전태섭, 리보배로인들,

오늘도 그들부부는 애국의 마음은 한생토록 푸르러야 한다는 지론을 변함없이 지켜가기 위해 남은 생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고 있다.

본사기자

—인상기—



사실 궁전이라고 하면 왕이 사는 집을 말한다.

그 궁전을 나는 평양에서 보았다. 그 궁전은 다름아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다. 고국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대로 응축되어있는 궁

전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 사랑이 넘쳐흐르는 따뜻한 요람,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만복의 궁전이다.

궁전에 척 들어서니 동화세계에 들어선듯 마음이 대번에 흥그려워졌다. 그려는 우리앞에 궁전의 학생소년들이 노래와 춤을 펼쳐놓는것이였다. 그애들이 얼마나 춤과 노래를 잘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는지 나이가 어린 저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도 잘할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는 그 의문을 손풍금, 가야금, 무용, 성악,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

나는 조국에 처음 온다.

솔직히 말하여 조국으로 나올 때 내 심정은 복잡하였다.

텔레비죤과 신문, 방송을 통해 조국의 소식을 알고는 있었지만 조선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된 서방의 여론이 나를 의혹케 하였다.

사실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강행하는 조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과 경제봉쇄책동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그러니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 조국이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하였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에게 자꾸만 갈마들었던것이다.

하지만 조국땅에 들어서는 순간 나의 가슴은 호기심과 찬란으로 가득차오르기 시작했다.

미국의 전쟁책동, 제재책동속에서 시들줄 알았던 조국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밝은 웃음이 피여있고 또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히 일떠선 문화

서예 등 궁전에 꾸려진 소조실들에서 소학교로부터 초, 고급중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학생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꽂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풀수 있었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꾸려진 궁전에서 재능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가고 있는 고국의 학생들을 보느라니 싸할린에 있는 우리 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이 떠올랐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춤이며 가야금 등을 배워주고 조선력사와 문화도 가르치며 민족의 냇과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그 재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고국에서 국가가 돈 한푼 받지 않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내어 마음껏 꽂고 주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통해서도 고국은 아이들의 나라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로씨야 싸할린주 《에뜨노스》 아동예술학교
신 율리야



정서생활기지들에서는 그들이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인민사랑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아주 멋지고 독특하게 일떠서 있었는데 그 모든것이 나의 눈에 비쳐든 조국의 모습이였다. 거기에다 모두가 무료로 공부하지 무상으로 치료받지...

정말 조국인민들은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고 있었다.

참으로 보이는것마다 훌륭하고 듣는것마다 새롭고 반가운것이여서 나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저절로 새여나왔다.

《파연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
중국 할빈시 한련옥



고국방문

크나큰 행복과 영광을 받아안고

-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

고국을 찾는 해외동포들의 발
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속에 재중

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이 조국
을 방문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방문의
나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청년운동사적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앙동물원,
금강산 등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특히 청년운동사적관은 동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사진자료들과 전시물을 보면서 청년사업을 중시하시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과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깊이 체득하였다.

이어 중앙동물원을 돌아보면서 동포들은 물범재주장에서 웃음을 꽂을 때 있으며 말을 타고 사진도 찍었다. 리혜영동포는 중

앙동물원이 천지개벽
되였다고 하면서 동
물원의 그 어디에서
나 사회주의 문명을 마
음껏 누리는 조국인민
들의 기쁨에 넘친 모
습을 볼수 있다고 말
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사회
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도 참가하였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김영녀동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해외동포청년들도
대회에 참가하도록 사
랑과 배려를 돌려주시고
우리들과 기념사진
도 찍어주시였다, 정말이지 오
늘의 이 감격과 행복을 무엇이
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고 말하였다.

김권, 리선, 박정일을 비롯한
동포들은 그 누구에게나 쉽게 차
례지지 않는 행복과 영
광을 우리들이 받아안았
다, 해외동포청년으로서

의 궁지와 자부심을 깊이 느꼈
다,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사
회주의 강국건설과 통일애국사업
에 적극 참가하겠다고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청년운동사적관에서



중앙동물원
을 돌아보는
동포들

애국의 대는 변함없이 이어진다

선택과 지향, 이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번 택한 애국의 길을 한생 변함없이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나는 지나온 인생길을 통하여 절감하였다. 내가 나 날이 심해지는 일본반동들의 반총련탄압책동속에서도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걸어오고 또 자식들도 조국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칠수 있게 키울수 있은것은 다 우리를 한풀에 안아주는 어머니조국이 있었기때문이다.

나에게는 세명의 자식이 있다. 그것도 다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였고 나도 그 애들을 잘 키워 나라앞에 떳떳이 내세우려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조국을 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키울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된것은 주체64(1975)년 총련결성 20돐을 경축하는 재 일본조선인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에 왔을 때부터이다. 그때 나는 조국에 처음으로 왔었다. 가는 곳마다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이 나에게 주는 충격은 참으로 컸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들은 뜻밖에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오랜 시간 우리를 만나주신 수령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오찬도 마련해주시며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애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

그때부터 조국으로 향한 나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졌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을 방문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는 영광을 안겨주실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친어버이의 정으로 우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조국을 위한 마음 변치 말라고 고무를 주고 힘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모습은 내가 어렵고 힘든 고비에 부닥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고 한생 조국을 위한 길을 걷게 한 자양분이였다. 그 자양분이 있어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조국을 알게 하고 애국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키울수 있었다. 솔직히 말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여나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자기 조국을 위해 일할 결심을 품게 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면 그 나날에 내가 받아안은 사랑과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에 대하여 알려주며 그 애들이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은근히 마음을 썼다.

그래서인지 그 애들은 조국에서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을 때면 누구보다 조국의 고마움을 폐부로 절감하였고 점차 크면서는 자기들에게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 믿고 의지할 조국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결국 그것이 그 애들에게 조국을 위한 애국의 길을 걷게 하였던것이다.

총련 아이찌현본부 위원장
서춘원



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서 자기가 설 자리를 찾을 때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나는것이다. 맏아들 길승은 지금 경제사업을 하고있지만 어떻게 하나 조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있다. 그런 형의 모습을 보아서인지 둘째아들 길현은 조선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총련사업에 자기 몸을 담그었다. 원래 체육에 소질이 있는 셋째아들 길령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체육계에서 선수생활을 하고있지만 앞으로는 꼭 아버지처럼 총련의 대를 이어나가겠다며 짬짬이 나의 사업을 도와주고있다.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품어주는 어머니조국의 품이 있어 오늘 우리 4부자는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걷고있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장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의 축기를 드리는 나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하신 총련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영원히 애국의 한길에 서있겠다.

더욱 확대되는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

-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처장 엄원호와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한 민족이 역사발전과정에 이룩하여 후세에 남긴 정신문화적재부인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그 나날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비물질문화유산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처장: 그렇다.

지난 70여년간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공보분야에서 국제적협조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것을 활동 목적으로 내세우고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문화유산의 한 분야인 비물질문화유산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매우 크다.

유네스코는 2003년 10월에 세계적범위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그의 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협약에는 협약당사국들이 자국령토내에 속한 비물질문화유산들을 대상으로 국가목록을 만들고 국가목록에 등록된 유산종목들 가운데서 유네스코의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물질문화유산목록과 인류의 비물질유산대표적목록에 등록하도록 하는 문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에서 보호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보아지는 비물질문화

유산들을 최우수활동목록에 등록하는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주체97(2008)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기자: 주체103(2014)년에 조선민요 《아리랑》이, 주체104

(2015)년에는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김치담그기풍습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소식을 나도 알고있다.

조국에서는 비물질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처장: 옳은 말이다.

각 도민위원회들에는 민족유산보호국이 있으며 성, 중앙기관들에는 민족유산보호책임부원직제가 있다.

그리고 대학들에서 학과목에 비물질문화유산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함으로써 누구나 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깃든 문화유산들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하도록 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미술대학, 고려의학과학원과 청류관 등 여러 교육, 과학기관, 봉사단위들이 비물질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오래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더우기 나라의 평범한 공민들도 비물질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해가고있다.

산삼리옹기술을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한 자강도 강계시에서 살고있는 리송히녀성은 우리나라의 천연보물중의 보물인 산삼의 리옹기술을 더 발전시키며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전해가기 위해 온 가족이 심혈을 기울여가고있다.

평양시 락랑구역에서 살고있는 김원범, 황경숙부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애국의 마음을 안고 역사의 이끼속에 묻힌 민족의 옛 명주들을 찾는 길에 20여년세월을 바쳐왔다. 하여 마침내 단군



술양조기술을 완성하였으며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단군신화, 주몽전설, 구들생활풍습, 뜸치료술, 평양행면, 장담그기, 씨름, 태권도, 고려청자공예, 단청기술, 민속무용 《봉산탈춤》을 비롯하여 사회적관습과례식 및 로동생활풍습, 전통의술, 전통음식과 식생활풍습, 구전전통 및 표현, 전통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대상들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기자: 정말 민족문화유산보호사업을 중요한 애국사업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옳바른 정책이 있어 우리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은 대를 이어 전해져가고있는것이다.

처장: 우리는 앞으로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협력밑에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감으로써 겨레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세계만방에 떨쳐나가도록 하겠다.

* * *

시중호의 감탕치료로 효과를 보다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펜을 들고보니 얼마전 제가 동해바다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시중호료양소에서 감탕치료를 받고 그곳 감탕에 매혹된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시중호는 원산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펼쳐져 있는데 동해바다와 백사장, 솔밭과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금강산으로 가는 관광객들의 휴식장 소로도 이름난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시중호(면적 약 3km², 둘레 11.8km, 길이 3.5km, 평균너비 0.8km, 물깊이 0.6~3.5m)는 조선동해기슭의 작은 만이였던것이 융기운동과 오랜 기간에 걸치는 바다의 물결작용에 의하여 만어구가 모래뚝에 막혀 이루어진 바다자리 호수라고 합니다.

한여름철 땡볕에 달아오른 몸을 흔 파도 출렁이는 바다물에 식히고나와 뜨거운 백사장을 맨발로 걸어가는 그 맛, 시원한 솔밭속에서 맛좋은 조개구이를 배불리 한 후 호수가에서 낚시대



를 드리우고 활똑같은 물고기를 낚으며 명상에 잠기는 그 맛은 아마 그 어디에 가서도 쉽게 찾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시중호의 진짜 매력은 호수의 밀바닥 감탕속에도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감탕치료의 덕으로 병을 털고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감탕맛 이야기로 시중호의 이 맛, 저 맛 가운데서도 유품이라고 첫손가락에 꼽고있으니 말입니다.

시중호료양소 소장 최경일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는 면 옛날부터 다리를 상한 학이 호수의 감탕에 빠졌다가 다리를 고치였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는데 60여 년전에 처음으로 감탕이 탐사분석되고 그 약효가 증명된 때로부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시중호기슭에 감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료양소를 세웠을뿐만아니라 해마다 수천t의 감탕을 채취하여 전국각지의 치료예방기관들에 보내주도록 하고있습니다.

류마치스판절염을 심하게 앓고있던 저는 한달동안 감탕치료를 받고 이제는 별 지장없이 사업하고있습니다.

시중호의 감탕에는 지방, 탄수화물, 아미노산, 비타민, 효소, 각종 미량원소 등 여러가지 유기물질과 무기물질, 류화수소를 비롯한 가스성분, 호르몬 비슷한 물질 등이 들어있으므로 각종 신경통뿐아니라 신경염, 외상후유증, 만성위염, 만성간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 만성소대장염, 여러가지 부인병, 남성생식기병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호의 감탕은 색이 검은 채빛이며 냄새는 거의 없습니다.

시중호감탕은 열용량이 크고 열전도성은 물보다 절반 떨어지므로 한번 덥히면 천천히 식을 뿐아니라 성형성이 세기때문에 치료로 준비한 감탕덩이의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료양소 감탕치료파에는 찜질, 전신욕, 견인치료실, 장세척실들이 있습니다.

감탕치료는 크게 감탕찜질, 감탕욕, 감탕제제에 의한 치료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 치료주기는 14~16회입니다.

감탕찜질은 환자의 병상태에 따라 전신, 반신, 국소로 하며 환자는 머리와 심장부위를 내놓고 42~44°C로 덥힌 감탕을 3~4cm의 두께로 불인 후 20~30분동안 있습니다.

감탕욕은 감탕을 물에 1:2~1:4의 비율로 풀어서 40~52°C로 덥힌 욕조안에 온몸의 반신 혹은 전신을 잠그고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감탕속에서 견인하는 방법, 감탕제제로 장을 세척하는 방법도 환자들의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추간판탈출로 신고하던 환자들이 감탕견인치료를 받은 며칠 후부터는 찌그렸던 얼굴을 차츰 펴는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감탕욕조안에서 운동할 때 내부 마찰이 담수욕에 비해 71배나 커진다는것을 저는 이번 료양기 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탕전신욕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욕조안의 감탕에 몸을 잠글 때에는 뜨거웠지만 몇분이 지난 후부터 시원한 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간호원 리온하에게 감탕온도를 물으니 그는 44°C정도라고 대답하고 나서 시중호감탕은 열전도성이 낮음으로 높은 온도의 감탕으로 찜질하여도 뜨거운 감을 덜 느끼며 오랜 시간 일정한 치료온도를 보장할수 있는 우점이 있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10분씩 전신욕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일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적지 않은 환자들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피부가려움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도 욕조안에 들어갈 때의 시원하던 느낌은 사라지고 팔과 다리의 판절마디들이 여느때없이 아파나고 맥이 없어 한 이를 간 신고하였습니다.

이것을 감탕반응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감탕치료를 2~3회정도 받으면 생리적 및 병적반응이 생기며 그것은 하루이틀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시중호의 감탕파 같은 치료용 감탕은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시중호의 감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분들은 그 어느때든지 찾아가보십시오.

그리면 그림같이 아름답고 눈이 부신 땅과 바다라는 『조국찬가』의 노래구절이 저절로 입가에서 흘러나오게 될것입니다.

본사기자 연옥

조선독립군의 녀걸 리관린



평안북도 삽주군에서 중산총가정의 딸딸로 태여난 리관린(1897년-1985년)은 조선독립군의 녀걸, 반일애국지사였다. 일명 리장청이라고도 하였다.

주체6(1917)년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타월한 지도자 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그는 조선국민회 회원으로 되었으며 평양녀자고등보통학교시절에 애국청년들을 끓어세우기 위한 지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당시 일제의 탄압과 감시가 심한 조건에서도 그는 여성으로서 평양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시는 김형직선생님을 찾아뵙고 그이의 가르침을 받아 파리된 조선국민회 조직을 복구정비하고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끓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벌리였다.

주체8(1919)년 3. 1인민봉기 때에는 평양의 청년학생들을 반일투쟁에로 동원하는데 힘썼고 시위대렬의 맨 선두에서 용감히 싸웠다. 인민봉기가 실패하자 독립군에 입대하여 광제청년단 총무로 활동하였으며 그 과정에 처녀의 몸으로 평안북도 삽주군 구곡면주재소 악질순사를 대담하게 처단하여 독립군의 녀걸로 명성을 떨치였다.

그후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파업을 받고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사업을 위해 서울에 나갔다

가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악착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까지 절개를 지키였으며 선생님께서 주신 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고 돌아왔다.

뿐만아니라 그는 삼주, 의주, 벽동, 창성일대에서 적들을 치는 전투에 여러차례 참가하여 용감성과 대담성을 보여주었다.

주체8(1919)년에 소집된 판전회의에 참가하여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을 전환할데 대한 김형직선생님의 전략적방침을 받아안은 그는 선생님과 함께 국내의 여러곳을 다니면서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과 인민들에게 선진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벌리였다. 그 후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무송회의 [주체14(1925)년]방침을 관철하는데 앞장서서 활동하였으며 그이께서 서거하시였을 때에는 무송에 찾아와 강반석녀사를 위로해 드리였다.

그는 주체16(1927)년 화성의 숙을 중퇴하시고 무송에 머무르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만나뵙고 조선인민 자신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루해야 한다는 그이의 가르침을 받아안았으며 그것을 반일운동의 지침으로 삼고 투쟁할 결의를 다지였다.

주체18(1929)년 국민부의 테로가 우심해지자 민족주의운동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판전현호산촌에서 숨어살았다.

주체60(1971)년 위대한 수령님께 편지를 올린 그는 이듬해 평양에서 수령님을 만나뵈웠다. 그후 조국의 품에 안겨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생활하다가 여생을 마치였다.

지금 그의 유해는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어 있다.

* * *

화가 정선이 그린 금강산산수화

18세기의 사실주의적 풍경화가였던 정선(1676년-1759년)이 어느해인가 금강산을 유람하며 이곳의 만록동과 구룡연, 삼일포와 해금강을 수십 수백 장이나 그림에 옮긴적이 있었다. 그때 그가 그린 산수화들이 얼마나 잘 그린 그림이었던지 마치도 금강산을 그대로 떠 옮겨놓은것 같았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느날이었다. 정선의 안해가 어느 한 집에서 비단치마를 가져왔는데 안

정선이 그린 금강산풍경화의 일부



상식

코를 골면 건강에 해롭다

코고는 증상은 잠을 잘 때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혀 기체의 류동이 연구개를 진동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코고는 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휴식에도 지장을 줄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도 나쁘다.

자료에 의하면 코고는 사람의 90% 이상은 혈압이 높거나 심장피줄질병이 있다고 한다.

코고는 사람은 피속의 산소함량이 낮기 때문에 산소가

결핍되어 기억력이 점차 쇠퇴되거나 빨리 로쇠하게 된다.

코고는 사람들은 몸이 뚱뚱해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기 쉽다.

코고는데 약을 쓰고 있다. 이 약을 잠자기 전에 코에 넣으면 인두점막이 습윤해져서 코를 골지 않거나 적게 곤다.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은 수술적방법으로 연구개조직을 성형하여 펴놓음으로써 공간이 생기게 한다. 그러면 잠잘 때 공기가 거칠없이 류동되면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 * *

방에서 그것을 떠보던 사람이 그만 실수를 하여 고기국그릇을 엎질러 비단치마가 크게 어지러워지게 되었다. 그러자 정선의 안해가 놓시 실망하며 커다란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된 정선은 웃으며 안해더러 치마말기를 듣고 주름을 펴서 어지러워진 부분을 씻으라고 하였다.

이윽고 정선은 안해가 손질한 세쪽이 이어진 비단폭을 쭉 펴고 거기에 금강산의 1만2천봉우리와 꿀짜기를 빠짐없이 그려넣었다.

얼마후 비단치마의 임자가 찾아왔다.

정선은 그에게 내가 그림그릴 의욕이 부쩍 동해 있던 참에 마침 댁의 비단치마가 우리 집에 와있다기에 거기다 금강산을 통채로 옮겨놓았소, 부인과 딸이 알면 크게 상심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걱정하면서 그림을 가져다 떠보이였다.

그러자 비단치마임자는 『이것은 천하보물이다!』고 환성을 터치며 정선의 손을 잡고 거듭거

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정선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는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 그에게 사례하였다.

그후 치마임자는 그림이 그려진 비단폭의 바느질자리에서 실을 뽑아 그림을 세폭으로 나누고 가운데 것은 집안의 보물로 간수하였으며 나머지 두폭은 때마침 연경(오늘의 중국의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가지고 갔다.

한폭의 그림을 화사에 가져갔을 때였다. 사천성에 있는 중 한명이 그림을 보고 참 잘 그렸다고 칭찬하면서 절간 하나를 새로 세웠는데 이 그림을 부처님 뒤에 불이고 싶으니 은 100냥에 팔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남경에서 온 선비가 나서며 자기가 100냥에 20냥을 더 얹어주겠으니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조르는 것이였다. 그러자 중이 크게 성을 내며 내가 이미 값을 정하고 사기로 작정한 것인데 명색이 선비라는 사람이 도리도 없이 논다고 책망하면서 은 150냥을 내놓았다. 그러자 그림의 임자는 중에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는 50냥만 받겠소.』하며 그림을 중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

* * *

민족대단결이자 조국통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지는 쓰라린 비극을 당한 때로부터 70여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열된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속히 끝장내고 통일과 평화, 부강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겨레의 절절한 소망이고 한결같은 지향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이 민족내부에 불화와 대립,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면서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에 제동을 걸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오늘 민족대단결은 가장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통일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기본원동력이다.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네원인것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선민족의 냇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라의 통일을 위한 대단결위업에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대단결만이 오래동안 갈라져 살아온 겨레가 통일을 이룩하고 번영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 참된 애국의 길이라는 것을 력사는 뚜렷이 보여주었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단결하여야 한다.

지금 북파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의 강토에서 수천년동안 함께 살아온 하나의 겨레, 하나의 퍼줄을 갈라놓을수 없다. 계급과 계층의 서로 다른 주의주장과 리해관계도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로 될수 없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중시하며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간다면 능히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움으로써 대단합, 대단결

을 이룩하고 그 위력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온 훌륭한 전통과 경험이 있다.

서로 껴안고 통일의 뜻으로 손을 맞잡던 6. 15 통일시대의 그 나날처럼 가슴에 넘치는 혈육의 정, 애국의 힘을 다시금 뜨겁게 끓여 민족대단결의 거세차고 장엄한 대하를 펼쳐나가야 한다.

지금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의 진정어린 대화제안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정치군사적도발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극도에 달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실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북파 남, 해외의 온 민족에게 있다.

북파 남의 각 정당, 단체들은 접촉과 폐왕의 물고를 터뜨리고 련대련합을 실현하며 민족의 단합을 부단히 강화해나가야 한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지금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슬기와 지혜, 단결된 힘을 과시해야 할 때이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기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직결시키고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위업에 헌신분투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을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은 조선민족이라고 말할수 없다. 북파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력사와 후대들앞에 통일애국자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새길수 있도록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을 한걸음을 참되게 내짚어야 한다.

온 겨레는 단합된 힘으로 민족을 리간시키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려해

재앙을 몰아오는 악녀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을 외세에 내맡기려는 남조선집권자의 친미배족행위가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당은 미국의 《싸드》를 정식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될 경우 그 피해당사자는 다름아닌 남조선인민들이다. 남조선은 미군에게 《싸드》부지와 시설물제공은 물론 건설비, 군수지원비, 운용비용 등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돈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남조선인민들이 들쓰게 되었다. 미국내에서 조차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싸드》는 강력한 전자기파와 소음공해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조성하고 주위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배척당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의 더 큰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싸드》배치에 따른 주변 나라들의 보복이다. 지금 로씨야와 중국은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자국에 중대한 전략적 손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였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남조선의 《싸드》기지는 불피코 1차타격대상으로 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게 된다. 하기에 《싸드》배치지라는 날벼락을 맞은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은 물론 온 남조선인민들이 미국의 침략정책에 추종하여 남조선을 대국들의 핵전쟁터로 내맡기려는 박근혜당의 친미사대와 매국배족적 행위를 반대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외세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추종하는 괴뢰당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미군은 《쥬피터계획》이라는 것을 내놓고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과 같이 치사를 높은 맹독성 세균들을 연구하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남조선에 설립하기로 하였다. 미국이 남조선 강점 미군 기지에 탄저균, 페스트균 등 세균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여 온 거례를 멸살시킬 생화학실험을 벌리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박근혜당은 그것을 묵인하고 비호두둔하고 있다. 사대와 군종에 짜들고 동족대결에 이끌리 난 나머지 미군의 세균전책동을 막아나서기는커녕 무작정 추종해나서고 있는 박근혜당은 우리 민족에게 핵과 세균전의 참화까지 들씌우려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 치고 친미사대를 하지 않은 집권자가 없지만 박근혜처럼 친미사대에 환장한 특등사대매국노는 없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맨 먼저 달려간 곳도 다름아닌 미국이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붙어 온갖 못된 짓을 도맡아한 것도 바로 현집권자이다.

이런 집권자이기에 넘겨주겠다는 전시작전통제권마저 미국이 그냥 가지고 있어 달라고 애걸하였고 남조선 주재 미국대사가 분노한 민심의 징벌을 받았을 때에는 멀리 해외행각의 길에서 위문전문을 보낸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병문안을 한다 하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대미굴종추태까지 부리였다.

미국을 덮어놓고 추종하고 따르면서 미국을 위해 남조선에 전략자산들을 자주 끌어들이고 핵전쟁연습들로 남조선인민들이 항시적으로 핵전쟁 공포증에 시달리게 만든 것도 다름아닌 현집권자이다.

삼천리강도가 어떻게 되든,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외세의 힘을 빌어 공화국을 기어이 없애버리려는 것이 친미사대에 환장한 현집권자의 악심이다.

모든 사실들은 박근혜야말로 북과 남을 가림없이 온 거례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참혹한 재앙만을 몰아오는 천하의 악녀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거역하며 친미사대와 매국배족을 일삼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박근혜는 명심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변진혁

어리석은 꿈

그 실현을 위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무장장비와 전투력을 서방군사렬강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으며 미국의 비호밀에 일본자위대는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하며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어벌이 커진 일본은 한쪽으로는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국만 해칠 수 있다면 무슨 짓도 서슴지 않을 남조선괴뢰당을 리용하여 저들의 목적을 실현할 흥계밀에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이니 뭐니 하며 남조선괴뢰당과 짹자꿍이를 하기도 하고 또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도 벌려놓고 있는 것이다.

이미전에 일본은 남조선군사당국자들과 공모결탁하여 공화국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어쩐다 하며 미국을 등에 업고 련합잠수함훈련을 벌리는가 하면 저들 단독으로 새형의 전투기비행시험까지 진행하며 분주탕을 피워댔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번 훈련은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다.

현시기 조선반도정세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폭권을 노린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으로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공화국의 핵시설과 핵무력을 없애기 위한 《정밀공습작전》준비를 공공연히 준비하는 것과 함께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편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핵전쟁 광기를 부리는가 하면 남조선과 그 주변에 각종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밀다 못해 이제는 남조선에 《싸드》의 배치까지 결정하여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통제불가능한 극단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항시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바로 이런 속에서 일본은 남조선괴뢰들을 일본에 까지 끌어들여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벌려놓은 것이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미국에 군종하여 돌아치는 남조선괴뢰당을 리용하여 조선반도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지난 세기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며 아시아를 메주밟듯 하던 그 시절을 재현해보려는 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그들은 하루한시도 옛 꿈을 버린적이 없으며 오늘도 계속 그 꿈을 꾸며

유모아

머저리와 총명한 사람

손님이 많은 전차안에서 한 사람이 발을 밟히웠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내 발이 너 같은 머저리한테 밟히우라고 생겨난 줄 아는가?》

그랬더니 발을 밟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소. 지금 나는 나같은 사람에게 발을 밟히운 사람이 얼마나 총명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요.》

《?...》

* * *

제재와 압박은 파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지난 6월 조국에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0》시험발사성공소식이 전해졌을 때였다.

미국은 추종세력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동원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공화국에 대한《규탄》이니, 《제재결의》이니 행이니 뭐니 하는 공보문발표놀음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겠다고 제법 큰소리까지 쳤다.

그따위 놀음으로 변화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초대국이 당한 수치를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미국이 허세를 부리며 피대를 들구었지만 결국 얻은것은 저들의 제재소동이 아무런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은것뿐이다. 미국이 스스로 제 목을 조이는짓을 해대며 돌아칠 때 세계 여러 나라 군사전문가들은 《화성-10》시험발사성공을 두고 고각발사는 뛰어난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기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고각발사시험을 한 데가 없다, 하지만 조선은 고각발사체계로 최대사거리리를 모의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시험을 성공시켰다, 조선의 국방과학기술의 높이를 알수 있다, 기적이며 일대사변이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결국 그들의 놀라움은 미국의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공화국을 대상으로 해볼것은 다 해보았다. 공화국에 군사적위협과 공갈도

가하여보았고 전대미문의 제재도 들이대보았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소동은 그 강도와 실행수단, 적용수법과 기간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하고 끈질긴것이였다.

미국은 1948년 9월 공화국이 창건되기 전부터 조선을 적으로 규정하고 일체 경제관계를 단절하였으며 체계적으로 제재를 확대하여왔다.

새 세기에 들어와 그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공화국이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를 행사하고 자위적조치를 취할 때마다 그것을 《위협》과 《도발》로 몰아붙이고 유엔무대에 끌고가 제재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렸다. 저어 저들이 조작한 국제적인 제재놀음에 다른 나라들이 말려들지 않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산하에 공화국과 관련한 제재위원회라는것을 만들어놓고 매개 나라들이 정기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비렬하고 치졸하게 놀아댔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에 매달리면서 공화국이 굴복하기를 기다렸지만 그 무엇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공화국의 전진을 멈춰세우지 못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속에서 오히려 공화국은 자립, 자력, 자강의 위대한 강국으로, 동방의 핵강국으로 전변되었다.

미국의 군사적위협이나 제재놀음에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는 공화국이였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높일수록 공화국은 자강력이라는 위대한 힘으로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웠고 경제강

국건설을 위한 돌파구도 확고히 열어놓았다.

하기에 유럽의 한 이름있는 조선문제전문가는 《1990년대 중엽부터 지금까지 조선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국제무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실공히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 우뚝 솟은것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인민이 죽음의 나락을 딛고 올라서서 강국건설에로 나가고있는것이다.》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경이적인 비약과 발전속도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결국 미국의 잘못된 대조선적 대시정책은 이런 결과를 산생시켰다. 미국은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여지없이 패하고 세계면전에서 깨깨 망신만 당하였다. 결국 미국이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제재와 봉쇄마저 무용지물이 되고말았던것이다.

지난 조미대결력사에서 미국이 공화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관계에로 전환시킬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모든것을 차버리고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강행하는 길을 택하였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절대로 발편잠을 자지 못한다.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덤비는자들에게는 안식처가 없다.

미국정객들은 지리멸렬의 치욕을 맛보지 않으려거든 변화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리성적으로 사고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한신애

고령산의 천지샘물

물을 사람의 생존과 로화, 질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최근 국가나노기술국의 연구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황해북도 상원군 령천리 고령산의 천저동굴에서 솟아나오고있는 샘물이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에만 존재하는 장수지역의 물과 특성이 같다는것이다.

대대로 천저마을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천저샘물을 가리켜 신비한 힘을 주는 《깨끗한 물》이라고 부르고있다. 마을에서는 90살을 넘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여 밭일을 하고있다.

샘물이 솟아나는 소의 깊이를 25m까지밖에 측정하지 못하였지만 샘줄기의 깊이는 훨씬 더 깊은것으로 추측되며 신기한것은 아무리 퍼울려도 샘물이 줄어들지 않는것이다.

천저샘물은 지난해 조국의 의학과학원 환경위생연구소에서 분석한 이후 중국 베이징대학과 상해복단대학의 분석측정실험중심에서 핵자기공명스펙트르반폭너비로 측정을 한 결과 소분자물로 인정되었다.

안전하고 깨끗한 기능성고급 물로 인기를 독점한 천저샘물은 조국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더해주고있다.

* * *





석담구곡의 요금정 본사기자 최원철

예로부터 돌못과 아홉개의 골짜기라는 뜻에서 불리워온 석담구곡(황해남도 벽성군 석담천중류지역에 있는 명승지)에 가을이 왔다. 봄철의 아름다운 꽃과 여름철의 짙은 푸름도 멋있지만 석담구곡에 있는 요금정의 가을경치는 볼수록 경탄을 자아낸다.